

한인뉴스

2016

4

VOL. 238

haninnewsinni@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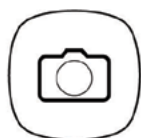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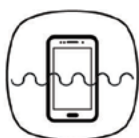
Galaxy S7 edge | S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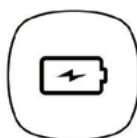
More Than A Phone



Brighter & Faster
Camera



IP68-Water & Dust
Resistant




Faster
Charging



Hybrid
Dual SIM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Mobile Indonesia

 @Samsung_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 ⁺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15	1735	월,목,일	33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2355	수,토,일	330-200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고향의 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

편집위원 칼럼/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강희중>.....6

신성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인도네시아 이슬람.....8

이선진 전대사의 일기4/“2006, 3
번 연기된 SBY 한국방문(2)”.....10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16

재인도네시아한인회총연합회 결성.....18

알파고가 100수를 놓았다는 건
100판의 이미지로 그때그때 판단했다는 것인데.
시간의 흐름에 스토리를 이어가는 인간은
이전의 일을 잊는다는 기계를 부러워해야 하는지...
인간의 경험이 경우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라면
매번 새로운 직관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은
불리한 걸까?
이거리는 욕망이 없는 로봇이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계와 일자리를 경쟁해야하고
우리가 모르는 기계만의 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두려워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바둑을 모르는 저는
사람이라면 두지 않는 수를 썼다는 해설자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바둑용어가 그리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contents

2016. 4. 통권 238 호

2016
4

이 달의 읽을거리

<지역한인회소식> 반동한인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중부자바한인회 코이카 소식 PHOTO NEWS	김종성의 그것이 궁금하다.....40 지상 갤러리/ 민화 <김현경>.....42 집중! 이 사람/ 이종순 센터장.....44 오만은 오물보다 추하다 <이연주>.....46 재외동포들 이야기.....48 4월의 행복에세이 <이동균>.....50 지진, 자카르타는 안전한가<최인실>.....52 법률해설 <이승민>.....54 Jalan-Jalan사공경칼럼/족자.....50 은행에서 필요한 BAHASA <허영순>.....60 KOTRA 구인, 구직 안내.....62 생활정보.....69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26	
최진열의 경제칼럼/ 세계는 지금금리인하경쟁중.....27	
<간담회> 한인들은 경제난관을 이렇게 극복한다.....28	
LOTTE, BPG 와 MOU체결	
CJ, 인니관세청과 MOU 체결	
JIKS소식	
박상훈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하게 살기...34	
3월의 경제 브리핑.....37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편집인 강희중

2016년 1월호부터 한인뉴스 편집인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잡지다 보니 뉴스는 이미 지나간 내용이 대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한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실을까... 고심을 하고 있다.

청년편집위원과 미술협회장을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영입하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도 게재하고, 한인뉴스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구성도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한인뉴스 속지를 약간 얇은 종이로 바꾸었더니 책을 펼치고 책장을 넘기기도 수월하고, 사진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세계 어느 한인잡지와 비교해도 인도네시아의 한인 월간뉴스잡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내가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QC(품질관리)업무를 맡아 사원교육용 교재도 만들어 교육도 시키고, 많은 행사들도 주관하였던 일이 이제 한인뉴스 편집인으로서 역할에 참고가 될 것 같다.

당시 HS그룹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회사의 규정과 품질규격을 만들고, “검사실무”라는 책을 만들어 검사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외 바이어들이 가져가 바이어 검사원 기준으로 사용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새삼 뿌듯해진다.

이후 중소기업으로 옮겨, 공장장 시절에는 ‘SS 공장 지’를 매달 발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용은 특히 종업원들의 예절과 근무자세, 출근시간 지키기, 정리정돈 방법, 기계관리 방법, 회사실적과 방침 등, 기술보다는 직장인의 자세에 대한 정신력 교육에 집중하였더니 회사실적은 저절로 향상이 되었다.

93년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회사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이지만 ‘삼성’ 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현장조직을 정비하였고, 모든 관리방법을 문서화하여 “ISO 9001” 도 획득하였고,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회사이미지도 향상되었기에 바이어로부터 최고의 공장으로 인정받는 영광도 안았다.

그 이후로 차츰 회사도 안정되고 마음의 여유도 얻었다. 그렇지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봉사활동에 필요할 것 같아 취미활동으로 서예와 색소폰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각기 동호회 회장을 맡으면서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그중에서도 2012년, ‘아름다운 나눔’ 이라는 자선 바자회를 예총단체들과 함께 주최하여, 족자지진 이재민 돕기와 한국국제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었던 일이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에 남는다.

지난 2013년에는 검도4단 사범으로써 <재인도네시아 대한검도협회>를 창단하여 매주 토요일 한국국제학교 체육관에서 한인들을 지도하며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그렇게 20여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매사에 기본 예의를 지키고, 약속은 틀림없이 지킨다는 가치관을 키워오며 소속된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아왔다. 개인보다는 단체에 속하여 그 단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아무리 개인의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인간은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 빛을 발하기엔 한계가 있다. 악기도 함께 어우러져야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리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과 명예를 위해 주위의 사람을 내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트럭에 생필품을 가득 싣고 시골의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며 어디든 마다않고 불우이웃 성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남의 어려움을 내 일 같이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삶인가.

가령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이나 욕심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다보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고, 덕이 부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지 못한다. 결국엔 인간다운 매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도 많으면서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어떤 사람이 더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지는 많은 한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어떤 지인은 특강에서 3:3:3 이론을 피력하곤 한다.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노하우로 사업을 하되, 만약 그 사업이 성공하면 “3은 가족에게, 3은 함께한 직원에게, 3은 사회에 환원하는 일” 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한인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낸 한인들의 성공사례나,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화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과 이웃에서 진정으로 봉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담을 한인뉴스를 통해 한인사회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널리 전파될 때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보이지 않는 손’ 인도네시아 이슬람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문화적 특징은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이슬람, 화교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번 ‘반도의 한국인 군도의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인도네시아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연구단체인 ‘인도네시아포럼’ 3월 정기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인 ‘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에 대해 탐구해 본다.

종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종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의 기준을 결정하는 최고의 정신적 장치로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구심력을 지니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세속국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을 순회하며 앞다투어 이슬람 지도자들을 만나 정책을 알리고 표심을 구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통치자들은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구의 85% 가량

이 무슬림이지만 헌법도 샤리아법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단체인 나둘라똘올라마(NU)와 제2위 무함마디아는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덜란드 식민정부, 일본 식민정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 등 지배층은 늘 이슬람을 협력과 견제의 대상으로 대했다.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인도와 중국 사이의 열대우림 지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사막의 유목 민족인 중동 이슬람과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많이 다르다. 인도네시아 군도는 힌두교와 불교가 정착된 이후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들어왔고 무력이 아닌 무역을 통해 평화적으로 전파되었기에 다원적이고 온건한 종교관으로 발전했다. 인도와 불교문화는 종교의식과 복잡한 절차, 더욱이 힌두교는 계급사회라서 대중적인 매력이 없었는데, 평등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종교적 의무실천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종교적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인됐다.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대체로 힌두교·불교적 요소와 기타 토착문화가 적지 않게 가미됐다. 예를 들어 미낭까바우(서부수마트라) 지역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발리 섬 동쪽에 위치한 롬복 섬의 일부 지역의 무슬림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종교적 관습이 남아있다. 최대 종족인 자바족 무슬림의 대부분은 ‘아방안’ 이라고 부르며, 토속신앙과 이슬람이 혼합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여섯 개의 종교, 즉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유교 등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가 명백하게 공공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향력 있는 군부 장교들이 과거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에 대항해 전투를 벌인 일을 상기시키며, 종교적 율법을 강화하려는 이슬람국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슬람교도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인도네시아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 또 이슬람은 밀려오는 서구화에 직면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인에 대항하여 원주민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슬람 민족기구인 이슬람상인연합(Seriakt Dagang Islam)은 화교와의 경쟁에서 무슬림 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1911년 창설되었다. 이듬해 이 협회는 애초의 상업적 목적을 폐기하고 대중적인 단체인 이슬람연합(Serikat Islam)으로 재편돼 자바와 수마트라 섬으로 세력을 확장하지만,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세력이 약화된다. 이 단체의 중심에는 ‘왕관 없는 자바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민족운동가 쟈크로아미노또가 있다. 쟈크로아미노또의 딸인 시띠 우따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정략결혼했지만 3년만에 헤어진다.

1942년 3월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했다. 점령지 통치자로서 일본인들은 현지인들로부터 환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일본은 점령지 국민들에게 아시아인은 백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며 새로운 아시아 단결은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식민통치자들보다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을 통치했다. 초기에 일본에 협조적이었던 이슬람지도자들이 돌아선다. 무슬림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만큼 일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슬림과 일제가 충돌했다.

일제가 물러나고 네덜란드가 다시 지배한 독립혁명기(1945~1949년)에 이슬람국가를 지향하는 ‘다룰이슬람’ (이슬람의 집)이라는 무장단체가 서부자바주 가룻과 따식말라야의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병력이 많게는 30만명까지 모이면서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항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했다. 다루이슬람은 1962년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진압됐다.

독립 후 인도네시아 정국은 민족주의, 이슬람과 공산당 등 세력다툼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나사콤(Nasakom)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주의와 이슬람, 공산



주의를 한데 묶으려고 한 적도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55년 총선에서 NU와 인도네시아 무슬림평의회인 마슈미가 부상한다. 이슬람계와 세속계 정당들의 의석을 거의 균등하게 양분했지만 인도네시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지 못했다.

개방적인 이슬람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질밥(히잡)은 수하르토 시대인 신질서 시기에 드물게 볼 수 있었다. 신질서 시대에는 중앙집권 강화와 종교집단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슬람을 의도적으로 억눌렀다. 또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슬람 세력의 지원을 얻고자 1990년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인 B.J 하비비를 총재로 인도네시아지식인무슬림연합(ICMI)을 결성한다. 이 조직은 이듬해 인도네시아 27개 주에 지방조직을 갖춘 대조직으로 확장했는데 정부고관, 퇴역군인, 학자 등을 영입하고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원로 이슬람 지도자들을 끌어들이 이슬람 세력을 통제했다.

1998년 외환위기로 32년간 철권통치를 한 수하르토 정부가 붕괴되면서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개혁시대를 맞는다. 수하르토 세력하에 있었던 많은 엘리트들이 ‘개혁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계에 등장했다. 그들은 수하르토 시절 정치공작을 펴던 이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이슬람집단 같은 보수파의 환심을 사려고 보수 이슬람 입맛에 맞는 사회적 의제를 내걸기도 했다. 이슬람 세력이 정치 공백을 대체하면서 이슬람 정당은 물론 이슬람수호전선(FPI)과 인도네시아 무자헤딘 등 과격하고 강경한 이슬람단체들이 세력을 떨치게 된다.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슬람세력은 정치권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두각을 나타낸다. 수하르토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혼란기에 최대 이슬람단체 NU 회장이었던 압두라만 와히드(구스투르) 국민각성당(PKB) 총재는 당시 소수 의석을 갖고도 이슬람계 정당을 연합해 대통령에 올랐다.



Masjid Istiqlal & Gereja Cathedral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는 2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스티클랄 이슬람 대사원과 산타마리아 가톨릭 대성당이 마주 서 있다. 다종교,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듯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이면서도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신정(神政) 국가 대신에 세속 국가를 지향한다. 독립을 선포한지 70년이 갓 넘은 인도네시아는 만인평등을 표방하는 사회적 이슬람을 추구하며,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이슬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6년 3월 8일자 “회사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령 원어 제명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6 Tahun 2016 tentang TUNJANGAN HARI RAYA KEAGAMAAN BAGI PEKERJA/BURUH DI PERUSAHAAN**

한국기업인들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종교명절 정의에 유교 신도에 대한 음력설 추가 <Pasal 1>
2. 종교명절 수당 지급대상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였으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대상 확대 <Pasal 2 (1)>
3.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계약직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도 종교명절 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Pasal 2 (2)>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산출 방식 규정 신설 <Pasal 3 (3)>
5. 종교명절 수당 지급 횟수 규정 신설 <Pasal 5>
 - 근로자별 종교명절에 맞게 연 1회 지급
 - 같은 종교명절이 1년에 2회 발생시 종교명절 시행에 적합하게 지급
6. 종교명절 수당 지급시 루피아화 사용 규정 <Pasal 6>
7. 종교명절 7일 전까지 지급의무 미이행시 기한 경과시부터 5% 벌금부과 규정 신설 <Pasal 10 (1)>
8. 종교명절 수당 지급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규정 신설 <Pasal 11>

상기 주요 내용은 원문의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요약한 것으로 참고용일 뿐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의 원문을 참고하시고

동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도네시아 관계정부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장관령에 대한 원문은 아래 인도네시아 노동부 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jdih.naker.go.id>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06년, 3번 연이던 SBY 한국 방문”(2)



2006년 5월 족자카르타 지진으로 무너진 Prambanan



<한인뉴스 2007년 6월호>

2007년 한인회는 각지역에서 모금한 족자 지진 이재민 돕기성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세웠다.

족 자카르타 대지진(大地震)

“4월 말 방한”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나고 전화하여 SBY 방한 일정을 조정할 만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시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5.27(토) 족 자카르타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날 나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골프를 시작할 무렵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족 자카르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교민들은 안전하다

는 보고를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땅도 넓고(남한의 19 배), 2억 4 천만 명의 인구를 가졌으며, 지진과 화산이 수시로 일어나는 만큼 어지간한 자연 재해에도 긴장하지 않는다. KADIN 회장도 별로 긴장하는 기색이 아니다. 그래서 골프를 마치고 샤워를 하려는 순간 서울 외교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망자가 수백 명이라는 외신보도가 있다고 하면서 상세를 알아보라고 한다.

나는 순간적으로 SBY 방문이 연기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골프장에서 사무실로 직행하였다. 사무실로 오는 차 안에서 정확한 지진의 피해 상황과 대통령 궁의 분위기를 파악할 겸하여 Dino P. Djalal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하였다. 동 보좌관은 자기도 현재 대통령 모시고 족자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피해상황을 모르겠다는 하였다. 나는 한국의 긴급 지원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오후 3:30 분 경 인도네시아 외교부 의전과장으로부터 SBY 방한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후 5 시경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부터도 전화가 왔다. SBY의 지시로 전화한다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방한을 연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국정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이다. 안보보좌관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현지 상황에 비추어 paramedic 과 medicine 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즈음 현지 언론은 최소 2000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보도하고 있었다. 대사관은 동 보좌관의 의견을 근거로 의료진의 파견과 의약품 지원을 서울로 긴급 요청하는 한편, 본부 관련 국장들에게도 전화하여 가능한 빠르고도 많은 지원을 부탁하였다.

그날로 의료진 파견과 10 만불 상당의 약품을 KOICA를 통하여 송부한다는 회신이 서울로부터 왔으며 지진 발생 하루 만인 5.28 서울로부터 대통령 위로 전문 및 의료지원(의료진 19명, 10만불 상당의 의약품 지원)이 대한 항공 편으로 도착하였다. 하루 만에 19 명의 의료진이 상당한 양의 의약품을 지참하여 자카르타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다. 서울 적십자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긴급 재난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풀

제로 운영하고, 비상 의약품을 늘 구비하여 발생 당일 서울 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의료진이 자카르타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제 의료지원 그룹 중의 하나이다.

3. 연이은 조석의 대미(大尾)

족 자카르타 지진은 사망 5,200 여 명, 부상자 7,500 명, 가옥 파괴 7 만 여 채로서 피해 규모가 이외로 컸다 (사진: 족 자카르타 지진 피해로 부서진 초등학교를 한인회 지원으로 복구).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족 자카르타는 조그마한 도시이나, 옛날 왕조시대의 수도로서 인도네시아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아직도 옛날 왕조의 직계 후손인 술탄이 주지사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고도이다. 이러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으니 대통령이 당분간 해외여행하기 어렵고, 또한 한국이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인도네시아 방문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따라서 SBY 한국 방문은 다음 해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 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

2006.5.31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산 장관이 6월 중순 한국과 중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며, 한국 방문기회에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외무장관이 주재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한.인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JC) 를 개최하자는 제안이다. 하산 장관의 방한 의사는 한국에 대한 SBY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BY는 4월 중동 순방 중에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고 한다. SBY 가 한국에 대하여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교부 장관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공백 없이 지속하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즉각 뉴욕 출장 중인 반 기문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략)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어 아쉽습니다. 양측이 그 동안 많은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측 전략 사업인 원자력 협력, 조림협력 (tree plantation), 방산 협력, 인프라 건설 참여에 추가하여, 인니 측 관심

사항인 기술 협력, 인력개발(HRD), 노무협력, 반부패 협력 등 알차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하산 장관은 Joint Commission 서울 개최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산 장관은 6.12 중국 방문에 앞서 6.9 JC 서울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Hassan 장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지진 사태에 대한 위로 및 우리의 지원 방침을 전하는 한편, JC 회의의 서울 개최 의사를 재확인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후략)”

반 장관으로부터 즉각 긍정적인 회신이 왔고, 그 날 두 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제1차 한.인 공동위원회를 6.9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반 장관은 당초 SBY 방한의 연기에 따라 한 명숙 총리를 수행하여 불란서를 방문할 생각이었으나, 수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한.인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반 장관도 유엔사무총장 경합에서 그만큼 아세안(태국) 후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SBY 7월 방한 합의

6.5 인도네시아 외교부 간부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SBY 7월 남북한 방문 설이 재차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로서는 예상 밖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로 보고한 지 몇 시간 후 7.19-22 간 SBY 방한을 희망한다는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외교공한이 대사관으로 전달되어 왔다. 이것으로 미루어 하산 장관의 서울 방문과 SBY방한이 한 세트론 준비된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산 장관의 서울 방문은 SBY 방한 준비 성격의 방문이다.

제1차 한.인 공동위원회가 6.9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여러 부처가 참여하였고 조림 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경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경제 부문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외무 장관 회담에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예가 아주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은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회의인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 졌고,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SBY

방한 일자를 7.19-22 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 계기에 한.인니 원자력 협력 협정이 假 서명되었고, 7월 정상회담 때 정식 서명하도록 국내 절차를 완료 하도록 합의 하였다.

외교부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한.인 공동위원회는 그 후 개최되지 않았다. 반면, 그 다음 해(2007년) 시작된 한국 산업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 장관 사이의 산업 협력 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궁으로부터 긴급 전화

2006.7.5 오후 5:30 경, Dino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긴급 통화를 희망하였다. 그 날 아침 북한이 스커트, 노동, 대포 동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였다. SBY의 남북한 방문을 불과 2 주 남긴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사관은 하루 종일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그는 다음 2 가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음날 오전 중으로 회신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 상황에서 SBY의 북한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지, 둘째 만약 예정대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사태 해결 또는 한반도 정세 안정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이다. 한국 외에 몇 나라 대사들에게도 유사한 주문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 오전, 동 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하여 본부로 받은 한국 입장을 전달하였다. SBY의 방북에 찬성하나 북한이 이 방문을 국내외 선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이다. 외교적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가 SBY의 방북에 대하여 다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답신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인도네시아의 내부 동향을 탐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사관 레이더망에 잡힌 정보는 SBY의 방북여부는 당시 예정된 중국대표단의 평양방문, UN 안보리 논의 동향 등 국제적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며, 한국 측이 SBY 북한 방문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접촉 과정에서 SBY의 남북한 방문 계획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감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미확인된 정보를 그대로 서울로 보낼 수 없어서 속으로 끙끙 앓았다. 이럴 때의 불청객인 잠 못 이루는 밤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7.11 저녁 8:40 분 경 서울 본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산 장관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를 희망하여 왔다고 전하면서 내가 그 배경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 장관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요청이다. 서울 전화를 받은 직후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SBY 방북에 대한 한국 입장에 지난 것(내가 전한 내용)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요청이다. 나는 반기문 장관에게 전화하여 하산 장관이 통화를 희망한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SBY 방북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듣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나의 생각을 보고하였다. 그 날 저녁 늦게 하산 장관과 반 장관 사이의 통화가 있었다. 그러나 두 장관 사이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 방문이 연기되면 한국 방문도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다.

7.12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도네시아 외교부 당국자에게 전화하였더니, 하산 장관의 지시로 SBY 남북한 방문을 연기하는 대외 발표문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동 국장에게 북한 방문 문제는 인도네시아 측이 결정 할 문제이나, 한국 방문은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서울 본부에 전화하였다. 반 장관이 하산 장관을 설득하여 북한 방문연기와 무관하게 한국 방문을 권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부 국장은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 방문과 방북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한국 방문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서울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서울의 분위기는 훨씬 싸늘하다. 인도네시아 측의 일방적 조치에 화가 나 있었다.



Dino Patti Djalal (SBY 안보보좌관, 추후 주미대사역임)

이를 감안해서라도 대사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하산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더니 즉시 들어오라고 한다. 대사관에서 외교부까지는 차로 20-30 분 가량 소요된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국내의 반응을 나름대로 예상하여 보았다. 국가 원수의 방문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간여하고, 민간 기업 및 민간 분야도 참여하는 만큼 방문의 연기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다. 특히 북한과 연계하여 한국 방문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이다. 하산 장관의 방문연기 지시는 물론 대통령 공과의 협의 하에 결정된 사실인 만큼, 결정의 번복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실망과 혼란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되어 개인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해서 안 되고,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주재국인사를 만날 때는 웃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충고를 몇 번 되새기며 마음을 추수렸다. 다만, 한국 사회가 방문연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확히 전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차 중에서 이를 메모하면서 갔다.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3월16일 선거 독려 캠페인

3월 16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4.13총선 재외선거인 등록을 2월13일로 마감하고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무궁화 본점에서 진행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우리 모두 선거에 참여합시다!” 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리플렛 배부 및 투표참여를 권유했다.

김문환 재외선관위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칭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를 꼭 행사하여 그 꽃을 만개 시켜주시기 바란다” 고 말하며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3월 21일, 한국대사관은 한인언론사를 통하여 재외국민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총력 캠페인을 펼쳤다. 조태영 대사는 “재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는 재외유권자를 위한 국가 정책이 발전하는 중대한 밑거름” 이라며 “재외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고 언론사를 통하여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3월 30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수라바야 투표소에서는 4월 1일(금)부터 4월 3일(일)까지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2016년 3월 30일(수) ~ 4월 1일(월)
18:00 ~ 17:00

권자입니다



3월31일 투표장에서 양영연 한인회장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조국의 발전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한인동포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투표 첫날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아 ‘재외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한인 유권자들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투표 참가자들이 적어 하루 중 일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옥미선 재외선거관은 “자카르타 한인 유권자들이 즐겁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포토 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장을 찾은 송주영씨(25세, 여)는 “사실 귀찮아서 안하러 했지만, 막상 하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활짝 웃었고, 김수진씨(49세, 여)는 “투표하고 나서 불평하든지 질책하자”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사랑이 투표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예상선거인수 32,187명 중 국외부재자 4,464명, 재외선거인 33명 등 총 4,497명이 등록했다. 총 유권자의 13.9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지난번 총선과 비교해 약간 상승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총연합회 결성



제1차 총한인연합회는 2016년 3월 10일, 한인회회의실에서 각 지역한인회 대표11명, 한인회 회장, 수석부회장3인,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양영연 신인회장의 공약 중의 하나인 재인도네시아 지역 한인회를 하나로 묶는 연합한인회의 결성의 포문을 열었다.

양회장은 “한인회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 결속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및 지역한인회에서도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또한 부여되는 절차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김주철 수석부회장은 “지역 안에서 각자, 봉사의 자리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시리라 생각한다. 중앙과의 소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강희중 수석부회장은 “이렇게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값진 의견들이 오가는 소통 뿐만 아니라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한인뉴스를 통해 지역한인회의 행사, 크고 작은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원을 임명하여 원활한 통로를 만들 예정” 이라고 말했다. 박재한 수석부회장은 “지역분과와 대외협력분과를 담당할 만큼 여러 지역한인회와의 활발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조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한인회의 소개가 있었다.

반등 엄정호회장: 최근 반등의 동포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현재 반등 한글학교에는 41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다.

케프리주 바탐 공자영회장: 현지인과의 교류를 위한 문화센터 운영에 치중, 글로벌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태권도, 인니인을 위한 한글학교 등의 프로그램은 선교사님들이 교사로 봉사 중이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동부자바 (수라바야) 이경운 수석부회장: 수라바야에 투표소가 설치될 만큼 2000명의 동포가 거주한다. 한글학교인 세종학당 3호를 계획 중이다. 현지인대상의 한국어강좌는 학생수 80명에 자원봉사 교사로 운영하고 있다.

중부자바 (스마랑) 김소웅회장: 중부자바라기 보다는 스마랑에 국한된 한인회이다. 환경, 조직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기업 94개 업체 2100여명이 있다. 한인교회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세대의 교육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러 지역 한인회를 아우르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표기, 명칭 등을 정하고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부자바 한인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까부미 김흥기회장: 소규모 봉제업이 주를 이룬다. 수까부미군의 태권도교육과 고아원지원을 하고 있다. 한인기업의 사업환경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보고르 이철훈회장: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하며 약간의 전자업종에서 일하는 3천5백 명이 있다. 현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카르타에 근접한 위치인 만큼 중앙 한인회와 같이 호흡한다고 생각한다.

족자카르타 박병엽회장: 마글랑, 족자, 솔로를 걸쳐 있으나 모임이 원활하지 않다.

앞으로 활성화에 노력해야겠다. 한인회 안에 오전/오후로 나뉜 토요 1,2 차 한글학교가 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족자 문화원에서는 격주로 언어교육 및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밖의 명절행사, 한인의 날에 대학과 연계해서 한국음식 알리기, 송년회등으로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

즈빠라 박상규회장: 가구생산을 하는 곳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그 아이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반뜰, 땅그랑 오세명회장: 2010년에 1기 출범으로 동포를 위한 땅그랑 문화원에서 자수, 기타 연주, 언어, 미술등의 강좌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2차례의 자화자찬 미술 전시회개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미래장학회가 있고, 동포 가정에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매년 벌이고 있다.

마카사르 한정호총무: 40여명의 작은 한인회이다. 작년, 한류에 힘입어 현지인 K POP 노래자랑을 열어 기대이상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현지 지역 tv 방영)

발리 안복희회장: 대부분 유동인이다,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동포는 드물다. 현지에서의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곧 있을 바자회에 많은 후원을 부탁한다. 서로 협조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양회장은 “한인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역할과 지역한인회와의 연합을 통한 한인의 유대 강화는 한인회가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므로 준비 중인 정관과 연락망구축은 확실하게 진행시킬 것이다.

지역한인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잡고 고리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앙한인회가 공동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해외의 어느 한인회보다 더 결속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1.명칭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 KOREAN ASSOCIATION 라고 정하고 2. 지방, 지역한인회의 행정적인 일들은 지역한인회가 일임한다 3. 총 연합회의 회장은 기존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자동 겸직한다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반둥한인회, 안동대와의 문화교류협약



국립안동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안동대 총장실에서 인도네시아 반둥한인회(회장 엄정호)와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 후 엄 회장은 안동대학교 어학원 시청각실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비전 특강했다. 엄 회장은 본인의 학창시절, 취업 후 인도네시아 현지 주재원으로서 그리고 현재까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험한 고뇌와 역경을 딛고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진솔한 경험담과 조언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반둥시는 인도네시아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모임·회원 2000여명)가 결성돼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반둥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엄정호 회장은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에 대규모 의류제조회사인 PT. ING INTERNATIONAL을 2005년에 설립해 2500여명의 직원을 가진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기업 활동 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경찰청장 공로상 수상(2012년6월13일), 미국 Ed. D.H 명예박사(Sanfrancisco Christian University),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세무청장 우수표창장 수상, 한민족 동포 대상 수상(한국신문 기자 연합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인물 대상 수상 등의 영예를 얻었다.

또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후 반둥에서 활동하는 한사모의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한인회 산하 단체로 편입시켰으며, 이들의 활발한 활동과 대외적인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엄정호 회장은 “한국 전통문화에 특성화된 안동대학교가 인도네시아와의 문화교류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한사모와의 교류 활동 지원 및 안동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안동대 김영훈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반둥한인회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문화교류 뿐 만 아니라, 활발한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인턴십 파견 등을 통해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NEWSIS)



지난 2016년 3월 5일 토요일, 반둥 토요 한글학교의 1학기 개학식 및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개학식 및 입학식은 남장희 교육문화위원장의 “한글사랑이 나라사랑! 민족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표제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되었다. 애국가 제창과 묵념이 이어진 뒤 학생 대표 서여준(9) 어린이와 윤강은(10) 어린이가 나와 선서를 하였고 엄정호 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새롭게 단장한 2016 반동 토요 한글학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엄정호 교장은 “앞으로의 미래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재 양성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글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김재용 고문은 “한국사람으로 한국의 말과 역사를 잘 알고 정체성이 있는 멋진 학생이 되어가자” 라고 말하며 한글학교의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교감선생님을 맡은 고혜숙 교감은 “반동 토요 한글학교만의 장점인 한글수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역사교육은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다. 또 매달 수업계획표를 세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말하며 식은 마무리되었다.

개학식 및 입학식은 1시간 동안 학생 41명과 학부모 및 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식이 끝난 뒤 담임교사들과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이동하였다.

처음 만난 혹은 오랜만에 만난 학생과 교사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첫 수업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반동 Setra Sari Plaza에 소재한 토요 한글학교는 ‘토요 학교’ 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자녀들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수업방식은 한국어교과서를 교재로 한국과 같은 교과 과정으로 공부한다.

또한 반동 토요 한글학교에는 한글공부 외에 야외수업 및 특별수업으로 축구, 농구, 수영, 태권도, 구연동화, 유아과학, 글쓰기 등의 시간도 있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자유롭게 즐기며 공부할 수 있다. 수업은 총 2학기로 진행되며 1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2016 반동 토요 한글학교는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반동 한인회 회장이자 교장의 인도아래 학교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번 2016 반동 토요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한인 회관 내 교실에서(1층~4층)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24시간 모집 중이다.

수업이 끝난 후 모두에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월한 등하교 교통편을 위해 2대의 버스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반동 한인회 사무실 주소 :

Setra Sari Mall Blok B3 No. 81
Sukajadi Bandung Tel : 022-200-2154

반동 한글학교 교감선생님 : 고혜숙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 놀며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을 기대해보자!

배한나(gkssk0086@naver.com)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 이.취임식

2대 하연수 회장을 이어 3대 오세명 회장 취임해...

3월30일 땅그랑 가라와치 임페리얼 클럽하우스에서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 대사관 이명호총영사를 비롯해 송창근 코참회장, 신만기 신발협회장,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총연합회장, 신기엽 한인회 명예고문 등 많은 인사들과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과 학생 등 각 분야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의 2대 한인회 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새로이 출범하는 제 3기 한인회(회장:오세명)의 활동에 큰 힘을 더해주는 의미있는 이,취임식 행사로 이어졌다.

제 3대 땅그랑,반튼한인회장에 취임하는 오세명 회장은 경북 봉화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동성화학을 거쳐 현 PT.SUNGLIM을 경영하고 있다.

땅그랑,반튼 한인회는 지난 2010년 1월에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이세호 회장이 취임하였고 그간의 활동을 보면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 행사를 했으며 2010년 월드컵 공동응원, 현지동거인 합동 결혼식, SUNSTAN행사, 현지직원 회계교육세미나, 여성의 날 행사, 땅그랑 문화원 개원을 통한 강좌실시, 한인의 밤 행사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해 왔었다.

새로이 취임하는 오세명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

서 한인동포의 편의와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으며 상호 공감하고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태영 대사의 축사를 이명호 총영사가 대독했으며 한인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3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영연 한인 총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인사회가 어려울수록 한인 모두가 단결해서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송창근 코참회장은 겸손한 리더쉽을 가진 3대 오세명회장을 통해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희망과 비전을 기대해 본다

제 3대 수석 부회장으로는 정주성 대성 법인과 채만용 씨뜨라 사장이 선임되어 3기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한편 땅그랑, 반튼한인회는 1기, 2기의 기반을 통해 이제 갓 출범한 3기는 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변화와 모험을 통해 한인사회의 대들보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라는 동포 상호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역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으로 본다.

(기사제공: 코파의 힘)





Korean Association, Semarang-Central Java, Indonesia

Jl. Bukit Raya No 1, Bukitsari, Semarang, Indonesia. a50269

Telp. : (024) 76482020, mobile : 0819 0498 8339, e-mail : 2016koras@gmail.com

2nd Apr 2016

재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정기총회

일시 : 2016 년 4 월 16 일(토) 16:30pm

장소 : Hotel Grand Candi, Semarang 2 층 Amartapura Ballroom

식순 :

1. 자바의 영혼, 바틱의 이해와 역사 강의
(사공경 한.인니 문화원 원장)
2. 아디다스를 통하여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의류 봉제 소싱 동향
(한성철 - panbrothers marketing G.M)
3. 공지 사항
4. 한인회 정기 총회
 - 1) 개회사 및 인사말 (한인 회장, 총영사)
 - 2) 감사패 전달
 - 3) 한인회 회칙 및 일반
 - 4) 한인회 사업
 - 4-1) 교육
 - 4-2) 문화 체육
 - 4-3) 경제 및 투자
 - 4-4) CSR 사업
 - 4-5) 기타

***** 순회 영사 업무 안내.**

- 일시 : 4 월 16 일(토) ~ 4 월 17 일(일)
- 장소 : 한인회 사무실
- 내용 : 모든 영사업무

- 재외국민 등록 안내

재외 국민 등록은 한인회 회원 모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 병역, 취업등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등록하지 못하신분들께서는 이번기회에 모두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코이카, 신한은행-팀앤티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 종료식 및 다목적 자립센터 완공식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3월 28일 인도네시아 반둥에 소재한 바뚜 농갈(Batu Nunggal) 지역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반둥지역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지원한 “길거리 아동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 역량 기반 조성 사업”의 종료식과 다목적 자립센터 완공식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인니 공공주택사업부 Arief Sabarrudin 연구개발센터장, 서부자바 사회부 Arifin Harun Kartasaputra 부장, 빠라향안 대학 Mangadar Situmorang 총장,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신한은행 서태원 인니 법인장, 사업 현장 운영을 맡았던 신정은 팀앤티 지부장(Jubit International) 등 사업 관계자와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은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둥 지역의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를 맡은 빠라향안 대학, 무상 토지 임대를 제공한 서부 자바 주정부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의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내었기에 더욱더 의미가 깊다.

본 사업을 통해 ‘The Little Giant Movement’라는 지역사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자재 생산 및 설치, 봉제, 매점, 가공식품 생산, 생수 판매 등 다양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직업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공감하여 반둥시와 서부 자바 주정부도 협약을 맺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도 기대가 된다.

이번에 완공된 다목적 자립센터는 앞으로 취약계층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건축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모듈형 조립식 건축기술인 RISHA(Rumah Instan Sederhana Sehat)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이 기술은 재난 지



역에 쉽고,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건물은 RISHA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기술을 이용한 건축을 자바지역으로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다.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민사회와 대학, 기업 및 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노력을 격려했다. 본 사업이 반둥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인니 공공주택사업부 Arief R&D 센터장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위해 다른 사업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사업은 단순히 사회기반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나타냈다.

서부자바 사회부 Arifin 국장은 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중요한 점에 있어서 본 사업이 귀감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반둥시 사회부 Aje 국장은 “이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둥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열의를 활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말형이며 기둥이신 김재유 장로님!

.....

장로님은

영원히 늙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년이었으며,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품격은 주변을 진정시키셨습니다. 한인사회에 행사가 열리기라도 하면 주저 없이 후원자로서 앞줄에 나서며, 꺾그러운 사람들도 포용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떠나시기 직전 마치 떠나실 것을 예감하신 것처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시고 가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 모두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도 이처럼 남은 사람을 위로하며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정녕 멀리 떠나시니 이 그리움을 무엇으로 달래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김재유 한인회 명예고문님!

그간 한인 사회를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 놓는데 크게 기여하셨음을 저희 후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부디 영면하십시오. 아울러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양영연 회장의 <추모사> 중

PHOTO NEWS



한인회와 한인단체와의 만남



2016년 3월 15일(화) 오전11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각 단체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총무)이 모여 (참석자:한인뉴스 강희중편집인, 한인회 최인실사무국장, 상공회의소 안광진 상근부회장, 민주평통 강제영간사, 대한체육회 성기채사무차장, 외식업협의회 최석일상임이사, 월드옥타 서준형사무총장, 자유총연맹 정찬우총무, 예총 이수진부회장, 코윈 이희경부회장) 각 단체 2016년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각 단체와 한인회와의 연계를 위한 여러 의제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공감, 인도네시아

여인의 등에 업힌 자무

사이즈 : 120 x 90

촬영장소 : Batu Jawa Timur

동부 자와에 있는 자무연구소를 다녀왔다. 자무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무의 장점은 사람의 신체기능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혈액 순환과 호르몬 밸런스까지 조정해 준다고 한다.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한다. 천연허브가 중심은 자무의 원료는 식물의 꽃, 잎, 열매, 줄기, 나무껍질과 땅속의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귀하게 쓰인다. 자무는 한 가지 재료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정도의 재료가 만나서 자무의 한 종류가 된다.

자무전문가에게 나는 상담을 했다.

“자외선을 많이 쬐이며 다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수많은 병들 중에 한 병을 꺼내더니 한 손갈 컵에 넣고 펠펠 끓던 뜨거운 물을 붓고 천으로 걸러서 나에게 마시라고 내밀었다.

“망고스틴(Manggis)인데 자외선 차단과 피부각질제거에 효과가 있으니 마세요.”

인도네시아 여인들에게 있어 자무는 엄마와 아기와 같은 존재다. 여인은 자무가 담긴 병들을 아기처럼 등에 업고 바구니에 담아 손에 들고 다닌다. 밤새 정성껏 만든 자무를 업고 새벽 동이 틀 때 집을 나서면 해질녘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좋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삶의 무게같이 무거운 자무를 걸머진 아주머니의 뒷모습에서 아기 업고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예전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짠했다.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최진열의 칼럼
경제를 말한다

세계는 지금 금리인하 경쟁 중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지난 3월 17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에서 6.75%로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금리 인하는 올해 1월과 2월에 이은 3개월 연속 인하 조치이다. 작년만 해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초 한차례 0.25% 포인트(7.75%→7.50%) 낮춘 것을 제외하면 연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경제성장률 회복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통화 완화 정책의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된 것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조코 위도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 경쟁력 개선 및 성장률 회복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을 중앙은행에 주문하고 있는 형세다.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는 물가상승률 안정과 루피아 통화 강세로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2015년 11월부터 정부의 관리 목표 범위인 3~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특히 12월에는 6년만에 최저치인 3.35%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최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달러대비 루피아 가치 역시 올들어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16년 들어 3월24일까지 3.8% 상승하며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뿐인 것은 아니다. 세계 130여개 국가 중 올들어 기준금리를 올린 국가는 13개국인 반면, 내린 국가는 18개국이다. 시선을 OECD 국가군으로 돌리면 금리 인하 추세는 확연해 진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올들어 3월24일까지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1개국에 달한다. 2015년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국가가 금리인하 기초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연초 글로벌 증시 폭락, 유가 하락,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감 등으로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가 확대되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경기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한 국가는 주로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남아공,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등이 그 대상이었다. 취약한 경제 여건상 만성적인 달러 부족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달러 유출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묶어두고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경우가 많았다.

각국의 금리 인하 러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국의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재동결하면서, 당초 4차례로 예상되었던 연간 금리 인상 회수를 2차례로 축소 예고했다. 아울러 3월29일 열린 연준의장이 미국의 경제 전망의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 조정이 “조심스럽게(cautiously)”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동시에, 금리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적 부담감도 함께 완화됨으로써 향후 추가 금리 인하는 역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들은 경제난관을 이렇게 극복한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들은 경제 난관을 이렇게 극복한다’ 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인뉴스 강희중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건설협의회 전민식회장, 봉제협의회 박재한 수석부회장, 신발협의회 이종운수석부회장, 완구협의회 이종현 회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강희중 편집인, 이하 **사**): 2016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동안 기업을 해오시면서 경제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 한인동포들의 기업의 현 상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협의회 별로 각 협의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봉제협의회 (박재한 수석부회장, 이하 **봉**):

KOGA는 초대 이병곤 회장님으로부터 현 김종립 회장님까지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1990년에 발족했습니다. 현재 350개 업체로 40억불 수출(FOB 기준), 5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저희 협의회에서는 회원사간의 원만한 소통, 의류산업 전문 지식 교류, 새로운 정보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발협의회 (이중윤 수석 부회장, 이하 **신**):

2008년 25개 회사로 발기하여 2009년 초대 송창근(PT. KMK)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파크랜드의 신만기회장에 이르렀습니다. 신발업체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는 신발 제조회사 20여개,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협의회 (전민식 회장, 이하 **건**):

2004년 12개사로 출범하여 현재 39개사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인니 수주 및 투자증진을 위한 상호 협조하고 현지 사업 환경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 교환, 공동이익보호를 위한 협력 및 회원사간 친목 도모를 목표로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완구협의회 (이중현 회장, 이하 **완**):

인도네시아 봉제완구 산업이 1986년 말부터 진출하여 1990년 재인니봉제완구협의회를 구축하여 초대회장으로 (주) 조신의 신병화 초대 회장을 추대하였고 7대 회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작업 분산을 활용하고 영업 정보를 교환하며 최신 안전규정 숙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로 기업간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 각 협회의 행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봉: 매월 회장단 및 상임위원사 모임 KOGA 협의회 현안회의, 2016년 6월 총회 및 세미나 개최, 9월 골프대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완: 정기총회 및 분기별 골프 친선대회와 송년모임을 갖습니다.

신: 회원사 권익보호 및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임금 관련 협의 및 대책수립, KOGA 소식지 발행, 지역사회 봉사(현지 빈곤층 및 재난 시 구호물자 및 성금 지원), 신발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관 및 주최, 코파 회장단 및 연말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 정기모임은 분기별, 임시 간담회는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6월 2차 CSR 활동, 12월 12일에 총회 및 재인니건설업협의회 총편람 제작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 각 바이어 동향 및 바이어의 국가별 오더 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완: 최근까지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에 인건비 상승 및 근로자 모집에 애로사항으로 서서히 생산기지를 일부 인도네시아로 옮기고자하는 바이어를 적극 유치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노동인력 부족 및 생산력 부족으로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자하는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봉: 바이어들의 가격, 품질, 납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인 선호국가는 베트남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베트남 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쳐져 있으나 작업 케파 쪽으로 인도네시아가 우세합니다. 바이어들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국가 배분과 밴더 배분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각 회원사 별 각자 바이어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어 오더 확보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 한국인 근로자 2000여명, 현지인 근로자 20만여명, KOFA 회원사 연간 매출액 약 30억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이키 25%, 아디다스 35%, 뉴발란스 25%, 베트남은 나이키 45%, 아디다스 35%, 뉴발란스 30%, 중국은 나이키 20%, 아디다스 15%, 뉴발란스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지역)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TPP 회원국이 되는 전제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 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 인니 건설 산업은 빠르고 활발하게 성장하여 2016년에는 GDP대비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플랜트 부문 84건 85억불, 토목부문 109건 34억불, 건축부문 93건 29억불, 용역부문 187건 6.5억불, 전기통신부문 13건 1.8억불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수행중인 건설 분야는 총 50개사에 49억불, 계약대비 잔액은 32억불로 집계되어 있어 향후에는 섬유 봉제 및 신발 산업 공장 확장 및 이전에 따른 수요증가, 발전부문, 철강부문, 고속도로 및 항만 건설 부문, 자동차 산업, 스마트 시티 개발 컨설팅 등의 수주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 회원사간 협력방안이 있다면...

봉: 회원사 알림 공지 및 정보 공유, 회원사 문제 제기 시 회장단 및 사무국 차장 업무 협조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 코파 소식지를 활용하여 회원사 신발산업 관련 정보 공유, 최저 임금, 인니 각종 경제정책 관련 협의 및 대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완: 어느 해 치고 쉬운 해가 없지만 세계 경제 상황의 급변화로 완구시장이 국내 및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를 바탕으로 이미 내성을 지녔기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 봅니다.

건: 회원사간 체계적인 정보 교류, 회원사의 의견 수렴 및 회원사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사: 각 협의회 별 경제 난관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완: 수요는 항상 있으므로 제품의 밀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생산에서 서비스로의 인력의 이동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금순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영업의 활성화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품질의 양극화와 다양화, 원,부자재의 고급화 및 자체 브랜드 개발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다들 노동집약형 기업을 꾸리시느라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곳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기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 회원사 상호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각자 바이어 대비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어 바이어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여 한 바이어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는 성실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시행 착오를 느끼는 것 보다는 오래된 바이어가 좋습니다. 그 경쟁력을 찾기 위하여 인건비 가 저렴한 지방으로 공정 이전

을 하기도 하고 또는 현재 사업장에서 인건비 올라가는 것 이상을 생산성 향상을 모색하여 인건비 완충을 하기도 하고 생산 공장 특성에 맞게 바이어와 아이템 특화를 시켜 안정된 채산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신: 나이키와 아디다스 생산 주요업체인 니코마스, KMK, 태광, 창신, 파크랜드, 상웨이, 피나립 등이 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중부자와로 확장 및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원 부자재 공급업체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방안으로 공장 자동화, 이노베이션, 전사적 직원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완: 영세기업으로 내수시장 위주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인회, 상공회의소 등과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이곳의 경제 여건에 변화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 한국 내 축적된 우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잉여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활용하는 등 본국과 인니 성장 및 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되며, 단기적으로는 현지 대형 건설사의 Infra Project에 참여를 위한 대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확고한 역할을 찾음으로써 더 한층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기대하며 더불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민장기 자량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 한인회는 대사관, 코참 등과 연계하여 깊이 협력하고 특히 정책, 노동, 노사, 세관문제가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내어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의 특징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등 경제활동에 애로사항을 이곳 기관과 연계하여 협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진출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상호 정부 교류회를 실시하고 대정부 지원 요청사항 정기적인 수집 및 제출, 각 협의회간 한인사회 동향 및 정보 교류를 해나가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의회의 모임에서 한인회의 개인 및 법인회비의 납부를 독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한인회원으로써 권리를 누리시길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의 고충을 듣고 서로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OTTE 와 PT. BPG 간의 MOU 체결

동포 기업인 PT. Busana Prima Global(박재한 대표)가 자체 Sport Brand 인 PELADA를 갖고 축구, 농구, Life Sports Style 운동복을 제조 생산하여 동포기업 Lotte Mart Indonesia(윤주경 상무)에 납품하여 Indonesia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롯데마트는 2008년 네덜란드계 MACRO 도매점포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4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BATAM, SURABAYA 등 전국 각지에 5개 점포를 신규 오픈할 계획이며 매출은 1조 7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PT. BPG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한국 현지 기업들의 내수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롯데마트



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고객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차별화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업무협약이라고 윤주경 상무는 평가했다. 또한, 한국 롯데마트와 공동 소싱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많은 로칼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인니롯데마트 관계자는 말했다.

CJ-인니관세청, “인니최초” 관세운영 시스템 개발 운영 MOU 체결

CJ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합 IES(Integrated Enterprise System)를 통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구역 실시간 관리와 지원 협력에 동참한다.

3월 22일 화요일, CJ인도네시아는 동부 자바 파수루안(Pasuruan) 내 CJ제일제당 바이오 공장(공장장 김한수 상무)에서 데시 아리핀샤(Decy Arifinsjah) 동부 자바 관세청장, 가말 삭파지(Gamal Saktaji) 파수루안 세관장, 뚜란또 시와 르도요(Turanto Sih Wardoyo) 끄디리(Kediri) 세관장 등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관세청 내 IES 시스템 통합으로 기업과 관세청 양측의 업무 처리 효율성 극대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J인도네시아는 기존에 활용되던 관세청 시스템에 자체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관세 신고서 등 제반 행정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관세업무 프로세스 간소화와 동시에 매년 4백만



불 상당의 기회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세청은 보세구역으로 관리중인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바이오 공장의 관

세 프로세스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더불어 CJ인도네시아는 관할 세관의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J인도네시아의 신뢰성 경영지원실장은 IES를 인도네시아 최초로 개발된 관세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으며, “기업과 관세청 양측의 업무 처리 효율성 극대화와 동시에 보세구역 수출입 허가 프로세스의 실시간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추진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업무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JIKS, 3월 29일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오는 3월 29일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 안내와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을 위한 입학설명회로 구성되어 있다.

재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2016년에 달라지는 교육과정과 주요 교육역점 계획 및 행사 운영에 대한 소개,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다.

‘STUDY JIKS!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JIKS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신입생 자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일시: 2016. 03. 29.(화) 12:30~

장소: 본교 나래홀

대상: 본교 학부모 및 예비신입생 가족
본교 교육에 관심 있는 교민

문의: JIKS 교무실 844-4958 (Ext 112)
(담당 교사 신순희)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제 37차 헤리티지 크망 갤러리 탐방

일시 : 2016년 4월 21(목) 9시

집합장소

Museum di Tengah Kebun

Jl. Kemang Timur Raya No. 66

62 21 719 6907

신청접수 : 카톡 아이디 LEETARIA, 헤리티지 밴드(핸드폰 번호와 성함)

1. Edwin' s Gallery

Jl. Kemang Rara No. 21. Jakarta 12730

62 21 719 4721

2. Duta Fine Arts Foundation

Jl. Kemang Utara 55A, Jakarta 12730

62 21 799 0226

3. Museum di Tengah Kebun

Jl. Kemang Timur Raya No. 66

62 21 719 6907

인도네시아 크망지역에는 아주 많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세곳을 방문하여, 현대미술 및 동남아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타이트한 스케줄로 작품을 감상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지만, 엄선된 갤러리인 만큼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색션



스마트한 인도네시아 생활을 위하여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안녕하세요? 한인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 드리는 박상훈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투가 ‘~했지 말입니다’ ‘~했습니까?’ 등 군대에서 쓰는 다,나,까 말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태양의 후예’ 에서 송중기가 군인으로 나오고 그 군인의 말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 ‘트렌드’ 라고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요즘 가장 트렌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신 트렌드의 중심에는 ‘스마트’ 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명절에 어른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 ‘직접 찾아 봐야 했는데, 전화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직접 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예의를 갖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손편지를 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편지라고 했지, ‘손편지’ 라는 말을 따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편지에서 전보로, 전보에서 전화로, 전화에서 이메일과 SMS로, 이메일과 SMS에서 메신저로, 소통의 방법은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쉽게 이야

기를 나누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소통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마음의 소통이나 ‘정(情)’ 을 나누는 부분은 더 줄어들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상훈의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하게 살기>에서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생각입니다. 세상은 기술의 발달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꼭 그 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알파고는 이세돌 기사와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인간이 졌다, 기계가 우수하다’ 라는 것 이전에, 구글이 만들어낸 훌륭한 이벤트였고 이 대결의 승리는 구글이라는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알파고처럼 대단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없다면, 카카오톡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과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발달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더욱 즉각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는 제한(시공간적)에서 공간적인 제한을 해소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근처의 쇼핑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통은 지역(공간)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집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터넷 세상의 특징 하나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의 유통점들은 여러 경쟁력 중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입지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구멍가게나 편의점도, 차를 타고 가는 대형유통점도 각각의 입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매출은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유통은 어떨까요? 공간의 제한이 사라진 온라인에서는 가격이나 배송, 상품의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어 졌습니다. 간단히 검색을 하는 것 만으로도 최저가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유통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쿠팡과 이마트가 배송과 최저가격을 경쟁력으로 유통의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 중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인터넷에서는 1위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이라 인터넷 트렌드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

신지요? 겉으로 보이는 기술의 발달이 아무리 빠르고 복잡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들로 여겨졌던 여러 변화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 한번 만으로 차량을 부를 수 있는 Uber가 있고, 단돈 1만루pee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물건도 보낼 수 있고, 사람도 실어주는 Go-Jek이라는 서비스도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없었다면은 최초로 만들어 질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한 GPS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변화되는 기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보시면 더욱 스마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온라인과 융합하여 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것 없으셨죠? 저와 함께 천천히 이 기술들의 원리와 트렌드를 알아 보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새로운 서비스를 편안하게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응답하라 2016 한인 문화 활동!

제3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Korean
Artist

2016년 5월 21일(토)~25일(수)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01 Exhibition

루시플라워 문인협회 미술협회
서예협회 헤리티지코리안섹션

2016년 5월 21일(토) ~ 25일(수)

Opening : 5월 21일 4:30pm

장 소: 롯데쇼핑에비뉴 Main Atrium

02 Performance

국악사랑 색소폰동호회 스트링오케스트라
아버지양상블 아르떼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월화차회 음악협회 한바패

2016년 5월 21일(토) ~ 22일(일)

공 연(토): 5월 21일 5pm 장 소: Ice Palace

공 연(일): 5월 22일 4:30pm

장 소: Main Atrium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코린도그룹 / 삼성전자 현지법인 / 배성경 한인회 명예고문 / 양영연 한인회 회장 / 송칭근 상공회의소 회장 / 이호덕 로알수마트라 회장 / 김우재 무궁화유동 회장
강희중 한인회 수석부회장 / 시공경 문예총 회장 / 김주철 한인회 수석부회장 / 조규철 한인회 고문 / 박재한 자비팔레스호텔 대표 / 최병우 대한체육회회장



2016년 3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1만 명 시위 벌였지만, 정부 “우버, 그랩 합법화 철회 안 해”



22일 택시 운전자들이 애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승차 서비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랩과 우버를 허가하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교통부 장관은 앱 기반 택시 승차 시스템은 기술일 뿐이라며 그 자체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난 장관은 기존 택시들도 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난 장관은 지난주 택시 기사들이 동일한 이유로 시위를 벌였을 때에는 정보통신부 측에서 우버와 그랩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한 주 만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버와 그랩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대신, 인도네시아 내에 사무국을 설립하도록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서비스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향을 택했다.

택시 기사들은 2년 전 택시 승차 앱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일당이 절반가량이 줄었다며 위 서비스

를 금지해 줄 것을 정부 측에 호소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22일 시위에는 육상교통운전자연합(PPAD) 소속 회원 1만여 명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주정부청사, 정보통신부 건물 앞을 에워쌌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 택시, 버스 등을 멈춰 세워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택시와 바자이(Bajai, 삼륜 교통수단) 몇 대가 부서졌다. 또, 앱 기반 오젝(Ojek,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 기업인 고젝 소속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장관급 인사는 누구든 범죄를 저지른 시위자는 기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는 시위 당시에 폭력에 가담한 운전자의 회사를 영업 정지할 방침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기업인 블루버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폭력에 가담한 직원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10대 은행 지난해 성적 어땠나

최대 자산 보유 은행은 만다리, 최대 자산 확대 은행은 BNI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은행들의 자산성장률에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10대 은행의 자산 순위는 거의 201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르마따(Permata) 은행의 순위만 한 단계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 유통 기업인 아스트라 인터네셔널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운영하는 뿌르마따 은행은 지난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판매량이 급락하면서 자산 사정이 악화됐다. 자동차 대출이 감소하면서 뿌르마따 은행 대출 수요도 함께 하락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2014년보다 6% 자산 성장을 기록한 빠닌(Panin) 은행은 한 단계 상승한 7위에 안착했다.

2015 인도네시아 10대 은행 자산 순위

10억 루피아(RP) 기준



지카르타경제신문 인포그래픽스/ Daily

출처 : JO 10m Bank's Financial Reports

국영 은행 만다리가 지난해 최대 자산을 보유한 은행으로 나타났다. 만다리 자산은 전년보다 6.4% 상승한 910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 중 가장 자산이 크게 확대된 은행은 국영은행 BNI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난해 BNI 은행의 자산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508조 9,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인프라 건설에 '구슬땀'

중부 자카르타에 아시안 게임 선수촌 아파트 10개 동 건설

공공사업·국민주택부는 2018 아시안 게임을 맞이해 중부 자카르타 꼬마요란에 아파트 10개 동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산하 주택관리국장 샤리프 부르하누딘은 17일, 개발자들과 3조 5천억 루피아에 건축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업은 아비쁘라야-인두렉스코와 국영 건설 기업 와스끼따 까르야, 앗히-자야 폰스트룩시-벤따, 위까 짜끄라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정부는 언론 성명을 통해 사업이 2017년 9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 7,424채인 아파트는 10헥타르의 부지에 건설되며 이는 꼬마요란 콤플렉스 C2 구역과 D10 구역에 해당한다. C2 구역에는 아파트 3개 동

1,930채가 건설되며 D10 구역에는 아파트 7개 동 5,494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각각의 아파트가 약 36㎡의 크기이며 거실, 주방, 샤워실, 침실 2개,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채당 3명의 운동선수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주가 수용하게 되는 선수단은 총 2만 2,272명으로 이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가 제정한 기준인 ‘게임 주최국이 제공하는 숙소는 만4천 명의 선수단을 수용한다’를 초과하는 것이다.

56년 전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라 봉 까르노 경기장에서 개회식과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자카르타 강 식수로 탈바꿈한다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자카르타특별주가 한국과 협력하여 자카르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지사는 “한국 측이 서부 홍수 방수로와 깔리조도 근처 크렌당 강물 정수 작업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카르타는 서부 자카르타 자띠루후르 댐의 원수만을 의존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 관리 기업은 “자카르타 강물은 오염이 심해 정수 과정을 거쳐 식수로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자카르타 내에는 12개의 강이 존재하며 강의 상류는 대부분 서부 자바 산악 지역에 위치한다. 12개 상은 찢리웅, 무끄르바앗, 앙끄, 뽀상그라한, 끄루꿏, 그로골, 찢삐낭, 순뜨르, 부아란, 자띠 끄라맛, 바루 바랏 그리고 바루 띠무르 이다. 이 외에도 인공 방수로인 동부, 서부, 쯡까랭, 짜꿏 방수로 네 곳이 있다.

아혹 주지사는 한국측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

으며 다음 주경 자세한 사항에 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장 뜨구 헨다르완은 정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정부는 강의 수면을 5~6m 정도 낮춰야 하며 널말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뜨구 회장은 사업의 세부 설명이 불가능하며 “한국 측이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카르타특별주 행정부는 한국 외에도 네덜란드로부터 사업에서 제외된 강의 정수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PPPSRS”

Perhimpunan Pemilik dan Penghuni Satuan Rumah Susun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Q1. 저는 Kelapa Gading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까?

A 예, 있습니다.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 59조 2항과 제 75조 1항 그리고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 54조 1항에 의거 다층가옥(이후에는 아파트로 명칭함) 개발자는 첫 아파트 구입자에게 아파트를 인계한 이후 1년이내에 의무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Q1. 갈수록 아파트 관리비는 비싸지는데 수질도 떨어지고 복도의 전등도 군데군데 꺼져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인 주부로서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Undang-Undang Rumah Susun 아파트법 제 74조 2항에 근거 사용자(임차인)는 소유자의 위임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아파트 구입자가 매입당시 개발회사에게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할 때 그 중에

한 장 포함 되어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 하에 위임 서명을 한 경우가 많아서 만약 귀하께서 참여 하실 때는 아파트 소유자의 권한 위임여부를 확인후, 만약 이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에게서 개발자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철회한다는 철회서 (Surat Pencabutan Kuasa)와 새롭게 귀하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위임장(Surat Kuasa)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저희 회사는 Cilandak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을 Badan Pengelora라고 부르던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A 대부분의 동포께서는 한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를 인도네시아 법률 상에서의 관계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국 법률 상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하며 구성인은 소유자와 사용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며 구성인은 소유자만으로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상에서 관리단은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개발자에 의해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으로 구성 또는 지정하고 반드시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 및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Q2.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그리고 관리단은 이사회와 비슷한 개념입니까?

A 예,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단법인의 정관과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진, 감사진 그리고 감독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아파트 전체의 관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단은 개발자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지정받은 관리 보수유지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회사로서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를 보수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개발자의 하부 기관으로서 그 관리단 자체가 개발자의 아파트 개발이후 이익의 원천(관리비 및 건물 임대료를 통한)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비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동포의 대부분은 임차인인 아파트 사용자이지만 관리비 및 기타 복지시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은 점점 더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부담은 가중되고 아파트 시설 및 복지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Tips 1 :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에 보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SHM Sarusun (Sertipikat Hak Milik Sarusu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국가의 토지상 권리증 인도네시아인에게만 부여하는 SHM (Sertipikat Hak Milik)과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SHM Sarusun (Satuan Rumah Susun)으로서 SHM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Tips 2 : Rumah Susun(다층가옥=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땅은 하기와 같이 오직 4가지의 토지 권리위에만 가능합니다.

1. Hak Milik (소유권)
2. Hak Guna Bangunan atas tanah Negara (국가토지상에 부여된 건축권)
3. Hak Pakai atas tanah Negara (국가 토지상에 부여된 사용권)
4. HGB atau Hak Pakai di atas Hak Pengelolaan(토지 운영권상에 부여된 건축권/사용권)

개발업자가 아파트 건축시 은행에서 Loan을 빌려서 건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포 기업들이 아파트 구입시 만약 Roya Parsial 여부를 확인 안하고 구입하면 구입후 모든 아파트가 판매 될 때까지 장기간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조선시대 후기 서민층에서 유행하던 민화는 양반들의 수묵화와 달리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그려, 보는 이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적이면서도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우리 민화에는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듯 생동감 넘치는 풍경, 싱싱한 야채와 과일, 친근한 모습의 호랑이와 까치, 상상의 동식물, 문방사우 등 무궁무진한 소재가 그림 안에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화려하고 고운 분채색과 어우러져 눈을 즐겁게 하고 장식적이기 때문에 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화의 진짜 매력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고 달콤한 민화 속 숨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란은 꽃 중의 왕, 부귀화로 바위와 함께 그려 크게 부귀를 누리고 천수를 다함을 의미하고, 화병은 평안을 보존하는 진귀한 병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등용문 고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과거 급제와 입신 양명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인 소나무는 수령이 천년에 달한다고 하여

무병장수와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합니다. 백로는 고고함, 과거 합격, 부부애를 상징하고, 병아리는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공명을 의미합니다. 해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연꽃은 연이어 자녀를 얻는 번영과 순결, 청빈, 고고함 등을 의미합니다. 대나무는 절개와 장수, 돼지는 재물과 복, 두꺼비는 행운과 복을 각각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다음 민화들에 숨어 숨은 이야기를 찾아 민화를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도상들 중에서도 동식물들을 화면 안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그린 '화조화'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입신양명, 다산과 행복 등 세속적인 인간의 소망을 염원하고 희구하는 길상화(吉祥畵)이자 장식화로 쓰였습니다. 그 중 호랑이와 까치, 기러기와 갈대, 화병과 여러 꽃나무 등은 각자 독자적인 상징의 미를 지니는 한편, 다른 도상과 쌍을 이루어 반복적으로 그려지면서 화려한 장식성으로 민화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궁중회화인 ‘책가도’는 책을 비롯한 골동품, 문방구, 각종 진귀한 수입품 등의 물건을 함께 그린 매우 호화롭고 장식적인 그림입니다. 투시도법이 사용된 것이 흥미로우며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그린 다양한 물품들은 기복호사 풍조가 만연하던 당시 문인 생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서로 대비되는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우리에게 익숙한 ‘일월오봉도’ 또한 궁중회화입니다. 궁중 회화가 사실주의적인 세련된 화풍을, 민화는 질박한 낭만주의적 화풍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민화의 주제 대부분이 궁중 장식화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색화 위주로 장식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민화에는 어떤 소망과 바람을 담고 계신가요?

이처럼 민화에는 허무함도 인생의 무상함도 없습니다. 커다란 염원이 가득할 뿐입니다. 순지에 화사한 치자 물을 들이고 바림과 섬세한 붓질, 색상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그려나가보고 싶습니다.

글:김현경(한인미협회원)



집중! 이 사람



한권으로 끝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안내서가 되길 바라며....



2016 인도네시아 종합가이드북 출간

이종순 그린비즈니스센터장

2016년 3월15일, 한인뉴스 편집팀은 Green Business Center (SME TOWER 6층)로 찾아가 '2016 인도네시아 종합가이드북'을 출간한 이종순 센터장을 인터뷰 하였다.

Q.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도네시아는 97년 처음 이곳을 여행하면서 회교국이라는 이질감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면서 인도네시아어 통역, 번역 및 강의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틈틈이 인도네시아 관련 다음 카페 '인도네시아세상(회원수 : 약 10,500명)'을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Q. 이곳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살아보니 또 다른 느낌이 있을텐데...

아이들 교육문제를 생각하면 인도네시아에 잘 왔구나! 하는 안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너진 공교육, 학원 폭력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권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접하는 글로벌의 경험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배우자도 여기에서 자란 바른 청년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웃음)

Q. 그린비즈니스센터 소개 및 전망

‘그린비즈니스센터(Green Business Center)’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내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 육성과 친환경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의 중소기업청과 인도중소기업부가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 제공, 세무/법률 등의 전문 컨설팅, 인도네시아어 교육,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케팅업무 지원 및 행정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한국 기업, 3개의 인도네시아 기업 및 1개의 싱가포르 기업 등이 입주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셈회원국의 중소기업은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의 경우 ‘친환경혁신기술’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분야의 수요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기업과 공급 기술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술매칭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 및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과의 상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개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정적인 정보로 인한 손해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협회와의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인사회와의 연계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린비즈니스센터’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한인사회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작이지만 ‘클릭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동영상 강의 CD’ 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데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일원이 되실 여러 국내 기업과 사람들에게 이번에 출간된 ‘2016년도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이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10월, 그린비즈니스센터주최 세미나에서 답사를 하고 있는 까리무딘 중기협력부 국장]

Q. 2016년판‘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느낀 점

최근에는 여러 정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분야별 안내 책자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각 분야별 인도네시아 정보 및 자료 등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전부터 해오던 중에,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2008년 한인기업디렉토리’를 발간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한인기업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생컨설팅’과 전문적인 디자인 및 편집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인니 종합 월간지 ‘프로젝트 키워’ 등과 협력하여 ‘2016년판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총 준비 과정은 2015년 6월에 기획 단계가 시작되어 2016년 2월 출간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께서 선뜻 도움을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 제작에 자료 제공 및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만은 오물보다 추하다

작성자 : 이연주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몸살을 겪고 난 후 무거워진 몸으로 가족들을 추스르고, 집 앞까지 와 준 이수진회장님 차에 몸을 실어 집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뚜레주르 제과에서 협찬 해주신 빵 상자를 싣고 트렁크가 가득해진 차에 나누어 타고 다시 목적지로 출발! 다들 두 손 무겁게 협찬물건을 가지고 오신 터라 두 손이 가벼웠던 저는 송구함에 후기라도 쓰겠노라 장담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순간 장담은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코 끝에 매달린 시궁창냄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까짓 냄새 때문에 한 끼쯤 입맛이 떨어진들 제 육신에 넘쳐나는 살들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카르타 버카시 바닷에 위치한 쓰레기 마을은 저의 예상을 보기 좋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이타니 겐지로 작가의 동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에서 쓰레기 속의 파리를 키우는 테쓰조가 사는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엿보았다고, 그래서 자신있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겼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으로 가득했던 것인지..... 오물보다 추한 그 오만 때문에 덩석 나섰나 봅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깔려있는 쓰레기와 그 위를 별뿔처럼 날아다니는 파리들이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일행들과 달리 아무것도 못하고 주춤거리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정신을 차린 후 눈에 들어 온 것은 아이들의 얼굴과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들, 줄 맞춰 앉아 빵을 받는 모습들이 그들의 허름한 옷과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습니다. 눈을 들어 둘러 본 교정도 아이들의 모습을 닮아 허름하지만 예쁘게 정돈된 꽃나무와 잘 어우러져있었습니다.

학교 밖에도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녀마가 가득 쌓인 집도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온 녀마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부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마 저 재활용(제 눈엔 쓰레기로만 보였는데.....)을 다 분리하고 담아야 오늘 밤 가족들과 몸을 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판자로 이어 만든 벽과 슬쩍 얇은 듯 한 슬레이트지붕, 마을의 집들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장담의 털 색깔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공터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입을 연 순간 목에 걸려있던 무엇이 밀려나와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가 여울처럼 울렁거리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미안한데, 그들을 동정한다는 것 또한 오만이지 않은가요. 결국 오물은 그 곳이 아닌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아이들의 앙글롱 연주는 훌륭했습니다. 이방인의 낯선 노래인 '아리랑'과 '만남'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 아이들은 예술가들입니다. 빵을 나눠 줄 때 다투지 않고 나눠주며 가족을 위해 품 안에 들고 가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위대한 박애주의자들입니다. 집에 와서 정리해보니 사진 속에 아이들이 환히 웃고 있고, 아낙들의 눈빛은 따뜻합니다. 그 웃음과 눈빛이 오늘 밤 저를 잠 못 들게 할 것 같습니다.

뚜레주르 제과에서 아이들을 위해 선뜻 많은 빵을 협찬해주신 덕분에 탐방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물품을 협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뜻 깊은 탐방을 기획해주신 헤리티지 코리아섹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만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걸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문학강연
4월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사랑과 고통의 이해와 본질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중에서 -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일시: 2016년 4월 12일(화) 오후 3시

장소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SCBD 소재 Equity Tower 17층

문의 및 접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서미숙 회장 HP 0812-817-8050

최장오 사무국장 HP 0815-1902-0237

후원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내가 잘 된 것의 반 이상은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

아너소사이어티 재외동포 1호 회원, 홍콩 리딩 디지털 김희상 대표

무역회사 리딩 디지털(Leading Digital Co., Ltd)의 대표 김희상 씨는 1993년 LG전자 홍콩지사 주재원으로 홍콩 땅을 처음 밟았다. 2000년에 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김 씨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한국 기업의 LCD 유리를 중국의 TV, 컴퓨터, 핸드폰 업체에 수출하고 있다. 올해로 17년째 사업을 이어온 그는 현재 중국 상해와 심천 등지에 지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올해 58살이 된 그는 60이 되기 전 한국에 들어와 그동안 조금씩 펼쳐왔던 기부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시켜 볼 생각이다.

김희상 씨가 기부와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시절 야학봉사가 계기가 됐다.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 슬하에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란 그는 대학에 진학한 후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김 씨는 불우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도울 수 있는 한 도왔다.

굿네이버스에 4년간 기부를 하기도 했던 그는 우연히 지인에게 아너소사이어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이 모임을 작은 기폭제로 삼아 ‘나눔’을 사회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012년 10월 25일, 김 씨는 직접 단체에 전화를 걸어 클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그는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재외동포 1호 회원이 됐다.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지역별 모임을 가지는데, 자주 만나는 지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어 딱 한 번 참석해본 적 있는데, 모임을 통해 외연을 넓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사회적인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상 씨는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클럽 가입 후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돌아온 대답은 없다.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는 ‘내

것, 내 가족, 내 핏줄’과 같은 정신이 깊숙이 자리해 기부 문화 정착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와 사회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전력투구 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모든 공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내 핏줄’에게만 쥐여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상당한 부분 사회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산업과 기업들이 커지면서 기회를 줬고, 내가 잘 된 것의 최소 50%이상은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환원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나눔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인 기부가 회사 기부를 넘어설 때 비로소 올바른 기부 문화가 정착된다고 본다.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기부 현황도 회사 기부의 5%도 안 될 거예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기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물론 회사 기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회사는 회사대로 기부하고, 오너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참여하셔서 개인 기부가 회사 기부만큼 늘어난다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김 씨는 한국에 돌아오면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는 이 사회에서 무엇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도울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니까요. 무엇보다 흔쾌히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의 뜻을 전했다.

(3월7일자, 재외동포신문 중)



"동포구제사업은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

"곤경에 빠진 동포들에게 고국을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제70차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남철)의 발제자인 재외한인구조단 권태일 총괄단장은 재외한인구조단의 역할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월드웨어’ 등의 단체를 통해 29년째 구제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권태일 단장은 “720만 재외동포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는 재외 한인이 20만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국외에서 곤경에 빠져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도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 (사)사랑밭과 필리핀 현지 단장의 협력으로 노숙자 보호기관인 ‘동포사랑쉼터’가 설립됐다. 동포가 많은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이런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권 단장은 강조했다.

재외한인구조단에 따르면 사기, 사업 실패, 현지 국가에서의 법규 위반 등의 이유로 제때에 귀국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일반 체류자 중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곤경에 빠진 동포들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방도를 찾다가 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재외한인구조단의 활동사항 및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발전적 결론에 이르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발행인은 “각국의 한인회장들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체계화 시키자”고 말했다. 한인회장들을 각국의 연결 책임자로 위촉해 현지 교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타국에서 방황하는 동포들에게 고국을 돌려주자’는 것을 목표로 2015년 4월 3일 창설된 재외한인구조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동포들이 처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이민청과의 별과금 협상, 귀국 항공편 비용 마련, 귀국 후 국내 정착 지원 관련 문제의 해결이다.

조남철 이사장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한인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며 “불법체류자는 국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의 방법 중 하나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외한인구조단은 2015년 발족 이후, 중국에서 5명, 인도네시아에서 7명, 필리핀에서 3명 총 15명의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귀국시켰다. 귀국 후에도 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립관에 거주하며 안정과 의료 치료를 받게 했고, 그중 2명은 기타 사회단체 시설에 추천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태일 단장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관련 부처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면 일단 민간단체에서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는 모두가 공감을 나타냈다.

권태일 단장은 “한민족으로서도 고초를 겪고 있는 동포의 딱한 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해외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는 다각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한인 회장들을 구조단 단장으로 위촉하고, 정부기관 및 정치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포들의 실태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꾸준히 알려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과제라고 정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제70차 재외동포포럼을 마무리했다.



감보자 꽃 속에 영혼이 있다



이 동균 / 수필가
andersonlee333@gmail.com

오늘도 찌꾸빠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면서 길가에 줄지어 서있는 나무들을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감상하며 회사에 도착했다. 길가에는 감보자 나무(Jepun), 야자수 나무, 오동 나무, 아카시아나무, 망고나무 등 전에 이름을 여러 번 들었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 나무들은 별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꾸어온 것 같지는 않고 자연 그대로 자라고 스스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질서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움이 있으면서도 무언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자카르타에서 찌꾸빠 톨까지는 고속도로라서 길이 넓고 차가 막히지 않지만 톨을 벗어나면 길은 한결같이 좁고 길다. 그 길 위에 각종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기에 앞으로 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열대의 나무들과 주위의 낮선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루하지 않음이 다행스럽다. 내가 10여 년 전에 사업하는 분들과 동남아여행길에 동반하여 인도네시아로 처음 오게 되었던 그때부터 나는 감보자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았다. 향기가 그리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 야릇한 천연향수 냄새가 내 머리를 마비시키곤 했었다. 또한 꽃의 색깔도 다양하여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으로 되어있

다. 꽃잎은 난처럼 도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해도 그 향기의 여운을 느낄 수가 있는 정말 독특한 꽃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특히 나는 빨간색의 감보자 꽃을 좋아한다. 푸른 잎새들이 마치 커다란 무사들의 호위를 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뚝하게 빛나고 영롱하게 조금은 수줍은 듯한 빨간 불에 연지 바른 새색시 같은 꽃잎의 느낌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감보자 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있는 꽃이라 하여 무덤에는 노란 꽃과 흰 꽃의 감보자가 많다. 나의 회사에서 자카르타로 나올 때 가끔은 동네 시장 길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 길에는 두 군데 작은 공동묘지가 있다. 거기에는 대부분 노란 꽃과 흰 꽃의 감보자가 정성스레 심어져 장식되어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 시점을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한발한발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 역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명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오늘이란 바로 어제 중환자실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날이기도 하다.

생로병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격어야 할 숙명 과도 같은 존재이다. 어쩌면 요즘 같이 전혀 예지치 않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 죽는 것보다 생로병사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이면 누구나 각자 질병은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검진하다 보면 대부분은 최소 하나씩의 경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중증질환의 소유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대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 과로에 의해서 생기는 지방간, 고지혈증, 만성 알레르기성 질환, 각종염증성질환, 많은 흡연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각박한 사회에서 무한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생긴 병들이다.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다 보면 먹고 싶지도 않은 술도 마셔야 하고 마음속은 화가 치밀어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웃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모든 오장육부의 장기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것에 대하여 몸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것이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까? 물론 단순 하고 쉽게 처음에는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해준 약이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간 복용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즉 양날의 칼인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지극히 물리적이고 의.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질환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인문학적 접근법, 즉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자신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현상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빠르게 이해하고 가

족, 주위사람들과 같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가 마음의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힐링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힐링이 되고 나면 어떨 때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인지 모를 허탈감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자신의 건전한 취미생활로 풀어야 한다. 취미생활이 혼자 하기가 외롭고 지루하면 동호회를 만들어 여러 명이 같이 활동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라' . 는 명언이 있다. 무릇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인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끊임 없는 욕심을 갈구한다. 그러나 그 생명이 다 할 때에는 비로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깜보자 꽃은 빨간색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 모진풍상을 경험하고 중년이 되어 노란색으로 변하고 나중에 색깔이 바랜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흰색으로 장식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의 인생길도 어느 새 빨간 꽃에서 노란 꽃으로 변하였고 서서히 빛 바랜 흰 꽃으로 가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동쪽하늘로 서서히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 멀리 사원의 기도 소리가 창 넘어 들려오는 시간, 내 사무실의 직원들은 오늘 하루의 일에 대한 결과 보고와 내일 할 일에 대한 구상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얻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정원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수줍음을 가득 머금은 빨간 꽃 깜보자를 상상하며 내 젊은 시절의 아련했던 사랑, 기쁨, 슬픔과 상처에 대한 추억의 영혼을 빨간 꽃잎 속에 담아 본다. 인생을 알차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느 빛깔의 깜보자 꽃 길을 걷고 있는지요?



지진, 자카르타는 안전할까?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

지난 2월 6일 대만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을 보면서 가끔 지진이 발생하는 자카르타는 지진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자카르타에 살면서 수 차례 경험해본 지진은 공포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었다. 경험해 본 지진 중 두어 번은 이러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은 강도가 꽤나 센 지진이었다. 더구나 대만 지진 발생 때 규격에 한참 못 미치는 철근과 쓰레기 깡통이 들어가 있는 부실건물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에 강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지는 한편 뭘지 모를 공포가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 대표 일간지 콤포스(Kompas)에서 “취약한 자카르타, 지진 완화 방안 명확하지 않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내의 건물을 대상으로 지진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준비상태가 아직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다” 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기술연구용융부처인 BPPT의 우드렉 연구원은 자카르타는 순다해협을 지나는 단층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강도 지진에 대해 상당히 취약하며 이러한 고강도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자카르타에서 체감되는 지진은 8 MMI(수정 메르칼리 진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지진은 4-5 MMI 였다. 지금 자카르타는 이미 지진 발생 주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카르타에 있는 노후 된 건물의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부실한 원자재를 사용한 건물도 있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자카르타에 고강도 지진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 진단을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만 안전 진단을 위한 재원부족 문제와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단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카르타 소재 일부 고층 건물의 운영자들은 건물 보안을 이유로 외부인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정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말 자카르타 주정부 자연재해극복 기구와 기술연구용융부처가 공동으로 자카르타 소재 5개 건물에 대해 지진에 대한 강도 테스트를 한 결과 7 MMI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700개 이상이 존재하는 자카르타로써는 극히 일부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의 모든 건물이 MMI 7에 견딜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진단 이외에 지진취약지역 및 건물에 대한 지도작성 및 비상 계획안이 필요하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각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 강도에 맞추어 내진 시스템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건설 표준을 가지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2012년 인도네시아 건설 표준을 보면 모든 건물은 M 8.1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다수의 인도네시아 지진 전문가들은 섭입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 M 8.1과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 M 7.2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건설 표준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자카르타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역에서 M 8.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반둥공과대학의 지진 전문가인 이완 메일라노 교수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인도양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자카르타에 M 8.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국가 지진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카르타 지하철공사측은 자카르타 MRT 기본 디자인도 지진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자카르타 MRT 기초 공사에 적용한 지진 표준은 영국과 일본 표준이었으



나 인도네시아 지진 전문가들이 일본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하여 지진관련 규정을 수정했다고 한다. 만약 지진의 규모가 리히터 규모 5이하일 경우 전동차 운행은 가능하며 이는 몇 개월 전 자카르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지진 발생 이후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리히터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다. 리히터 규모 5 이상 8 미만의 지진에도 전동차는 운행을 중단 하게 된다.

한국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달리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지진을 경험해 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살면서 경험하는 지진이 상당히 두려울 수도 있다.

우선 집안에 있을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만약 몸을 숨길만한 테이블이 없다면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작은 지진일지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에서 사용중인 가스 불부터 끄도록 한다. 특히,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입문을 열어두어 출구를 확보하는 일이다. 최근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의 경우 문이 비뚤어져 갇힌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우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집안에서 대피하는 것이 낫다.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이 넘어질 수 있다. 실외에 있을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한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도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빌딩가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기술로는 정확한 지진 예보가 어렵다고 한다. 동물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하지만 그런 현상과 지진 발생을 연관 지어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결론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우리의 안위와 직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진이 가끔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한번쯤은 자신만의 지진 대처 매뉴얼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절대적 개념의 (규모)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가 사용되고 있다. 규모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질학자 리히터 (C.Richter)의 이름을 따서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 주기, 진앙 등을 계산해 산출된다. 예를 들면, 규모 5.6, 진도 IV. 따라서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5.6의 지진'은 틀린 표현이며 '리히터 스케일 혹은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 또는 단순히 '규모 5.6의 지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언론에서 지진을 말할 때 리히터 규모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섞어서 쓰는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지진의 규모는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지진의 진도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규모는 대개 리히터 규모를 사용하고 진도는 대표적으로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사용한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며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정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는 지진이 지구 표면에 미친 영향을 진도라고 한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는 피해지역의 실제로 관측된 피해를 바탕으로 일어난 지진에 12등급으로 등급을 정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민법(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6. 가족법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성적 결합에 의하여, 아이를 낳고,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근년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지구상의 온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행복을 추구하고, 종족을 보존해 가는 것이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시작하여,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생기고, 이 모든 관계를 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이 가족법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족법은 민법전(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Burgerlijk Wetboek),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혼인법”), 관습법 및 이슬람법이 있다. 부족별로 다양한 관습법과 종교법인 이슬람법 가족법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 장에서는 민법전과 혼인법을 통해 인도네시아 가족법을 들여다 본다.

6.1. 친생자(Anak Sah)

민법전과 혼인법 제42조에서는 “친생자는 적법한 혼인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혼인관계란 법에서 금하는 혼인관계가 아닌 혼인을 의미한다. 법에서 금하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아이로 추정되며, 아이를 잉태케한 남편은 아이의 적법한 아버지가 된다.

6.2. 친생자 부인

남편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i) 혼인 전에 아내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혼인 전에 알고 혼인을 했거나, 남편이 아이의 출생 등록 서류에 서명하고 호적에 등록했거나,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없다. ii) 아이가 태어 날기 전 180일에서 300일 사이에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남편은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있다. 이 때 태어난 아이가 남편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 iii)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에 의해 비밀로 낳은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은 아이가 낳은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은 아내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으며, 친생자 부인 시한이 있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낳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 출생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낳는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아내가 아이 출생을 남편에게 속인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친생자 부인을 해야 한다.

6.3. 친생자 증명 방법

6.3.1. 민법전에서는, 민사등기소에서 발급한 호적초본(Akta Kelahiran)이나, 호적초본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친생자의 지위를 누린 경우, 친생자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 혹은 증인들이 친생자 증명을 한다.

6.3.2. 혼인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정증서 호적초본이나, 공정증서 호적초본이 없는 경

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확인판결문(Penetapan)을 청구하여 친생자 증명을 한다.

6.4. 혼외자(Anak Luar Kawin)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를 혼외자라고 한다. 혼외자는 아버지와는 아무런 민법적 관계가 없으며, 어머니와 어머니의 가족과 민법적 관계가 있을 뿐이다.

6.4.1. 혼외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혼인하고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외자 신분에서 친생자 신분으로 될 수 있다.

6.4.2. 혼인을 약속한 남녀가 아이를 가졌으나 한 당사자의 혼인 전 사망으로 혼인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친생자 신분으로 될 수 있다.

6.4.3. 혼외자의 친생자로 신분 변경은 아들은 19세 이상 이어야 하며, 딸은 연령 제한이 없다.

6.5. 근친사생아(Anak Sumbang)

법에서 혼인을 금하는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는,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혼인허가 판결을 받아 혼인을 하고 아이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가 될 수 있다. 법에서 혼인을 금하는 사이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인의 자매, 남편의 형제, 숙부모, 고모, 조카, 손자녀, 조카손자녀 사이이다.

6.6. 간통사생아(Anak Zina)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신분변경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없으며, 간통사생아는 통상 어머니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한다.

6.7.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6.7.1. 민법상의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i)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양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있으며, ii) 부모가 혼인의 상태

를 유지할 때에만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iii)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부모의 권리가 있고,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리를 상실한다.

6.7.2. 혼인법상의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

i) 부모는 자식이 결혼 혹은 자립할 때 까지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ii)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야 하며, iii) 부모의 선한 뜻에 복종해야 하며, iv)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식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v)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18세 미만의 자식 혹은 미혼 자식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vi) 부모중의 한 사람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식을 심하게 학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친권을 박탈당했는지라도 자식 부양비 부담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8. 후견인 제도(Perwalian)

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후견인 제도는 친족적인 보호 요소보다는 재산적인 보호 요소가 더 강하다. 부모 혹은 더 오래 산 부모가 유언장, 혹은 증인 2명 앞에서 구두, 혹은 법원의 확인판결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은 i) 아이의 종교를 존중를 존중하여 아이와 아이의 재산을 신의성실원칙으로 돌봐야 하며, ii) 후견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의 모든 재산을 기록하고 이후 모든 변동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iii) 후견인의 실수 혹은 태만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iv) 아이의 유익을 위하지 않은 재산 매각 혹은 담보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 계속)



평화로운 도시, 족자 - Yogyakarta, Jogja, Yogyakarta, Jogjakart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살아 숨 쉬는 고도 (古都) 족자카르타-

20여 년 전 족자카르타(이하 족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족자는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공원도시 같았다. 더불어 온화한 눈빛으로 예의 바르게 다가오는 족자 사람들로 인해 더욱 평화스럽게 느껴졌다. 광장(alun-alun)에서는 산비둘기가 내게 노래를 불러 주었고, 황색 야자나무는 거리 곳곳에서 격렬하게 투쟁하는 듯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긴 슬픔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름다움과 깊이는 미학적으로 다가왔다. 나중에 족자 사람들은 새를 좋아하고, 족자의 상징동물은 평화를 의미하는 산비둘기이며, 족자 왕자가 제일 좋아하는 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족자의 상징 식물인 황색 야자나무는 철학과 문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족자 식물의 대표명사인 이 황색야자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의례에 주요 필수품이 되고, 전통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족자는 Merapi 화산 남쪽 기슭의 비옥한 평야인 자바 섬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32.5 km² 이며, 인구는 약 3,500,000명(2012년)으로 인구밀집지역이다. 도시에 약 640,000 명이 살고 있다. 지금은 차, 오토바이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배짱, 안동이 많은 한가한 거리 풍경과 뒷골목까지 깨끗한 족자는 예쁘고 정겨운 도시였다. 족자는 리아우 (Riau)의 주도인 Pekanbaru와 같이 2011년에 대도시 부문에

아디뿌라 (Adipura) 상을 받았다. 이 상은 깨끗하게 환경을 잘 관리하는 도시에 주는 상이다. 족자의 관광슬로건은 ‘무한한 아시아(Never Ending Asia)’이다. 족자에는 경험할 것이 무한하다는 의미이다. 1997년 경제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끝없는 아시아’로 표현하였다.



3번 바뀐 족자의 명칭

<Ngayogyakarta - Yogyakarta - Jogjakarta (Jogja)> 족자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이란 뜻을 가진 도시이다.

하몽꾸부위노(Hamengku Buwono) 1세 왕이 1755년에 세운 왕국 ‘아육야카르타(Ngayogyakarta)’에서 유래되었다. 고대자바어로 ‘아’ (Nga)는 ‘없다’는 뜻이며, 요기야

(yogya)는 전쟁을 의미하는 요디야(yodya)에서 유래하였다. ‘까르따(karta)’는 ‘번영하다’라는 뜻이다. 또한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라마야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라마의 나라 ‘아요디아’를 답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우정의 도시’라고도 한다. 족자는 그 명칭의 의미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일어나는 종교 분쟁, 종족분쟁이 없는 곳이다. 1998년 5월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외국인들

이 족자로 피신을 하였다. 족자는 그 이름처럼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만(aman)이다.

Yogyakarta(육야카르타)라는 명칭은 인도네시아가 독립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946년에 족자를 임시수도로 사용할 때도 이 도시를 육야카르타라고 불렀다. 또, 하몽꾸부위노 9세 왕이 족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속하는 도시라고 선언할 때도 육야카르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후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육야 (Yogya), 육자 (Yogja), 족자(Jogja), 족야(Jogy)이다. 많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족자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족자카르타의 정식 표기법은 Y 자음으로 시작한 ‘Yogyakarta’인데, 발음할 때는 J 자음으로 시작한 ‘Jogjakarta’가 된 연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야’를 ‘족자’로 말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족자의 명칭은 3번 바뀌었다. 또 다른 표기법으로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사용했던 ‘Djokdja’가 있다. 말리오보로 (Malioboro) 길 북쪽의 끝에 그때의 명칭을 여전히 사용했던 Grand Hotel de Djokdja(현재는 Hotel Inna Garuda)가 있는데, ‘Djokdja’란 표기법은 고대 분위기를 자아낸다.(옛날에는 j를 dj라고 썼음)



#족자의 역사

자바인의 고향, 아직도 술탄이 지배하는 곳 족자는 인도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350여 종족 중 가장 큰 그룹인 자바인의 고향이다.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열대문화를 가진 자바인은 농담을 좋아하며,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으며 친절하다. 또 화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을 많이 사용한다. 족자에서는 아직 왕국이 존재하며 왕이 사회를 지도하는 오랜 역사가 있는 우리의 경주 같은 도시이다. 불교왕국시대, 힌두왕국의 전성, 이슬람왕국시대,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일본의 강점, 민족주의 투쟁을 지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힌두나 그 이전의 문화도 혼합되어 있어 정령 신앙도 남아있다. 현재는 이슬람교도가 90%이상을 차지하는데, 1912년 카우만 (Kauman) 지역에서 아흐맛 다흘란(Ahmad Dahlan)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이슬람교 재단인 무하마디야 (Muhammadiyah) 를 족자에 설립하였다.

족자는 8세기에 세워진, 문명이 번영한 고대 마따람 힌두왕국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기이한 자연 재해로 인해 10세기에 고대 마따람왕국은 중앙 정부를 동부 자바로 옮겼다. 즉, 스메루 (Semeru)산과 윌리스 (Wilis) 산 사이에 위치한

와뚜갈루 (Watugaluh) 지역으로 옮겼다. 동부 마따람왕국을 세운 음뿌 신독 (Mpu Sindok) 왕은 929년부터 947년까지 왕국을 다스렸다. 1582년 존경받는 세노빠띠 (Panembahan Senopati) 왕이 족자의 꼬따 그대 (Kota Gede) 지역에서 이슬람교 마따람 왕국을 세웠다. 현재 왕국과 요새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꼬따 그대는 은 수공예품으로 유명하다. 족자에 속하는 꼬따 그대는 1575년 ~1640년 사이에 마따람 왕국의 중심지였다.

이처럼 족자는 마따람 왕국과 관계가 깊다. 뿐만 아니라 빠꾸부위노(Pakubuwono) 2세의 친 동생인 망꾸부미(Mangkubumi) 왕자의 공헌 덕분에 마따람 왕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주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따비아(현 자카르타)에 기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견제에 의해서 점차 국력이 약화되었다. 18세기에는 자바 섬에서 3차례에 걸쳐 독립전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약해진 마따람 왕국은 결국 1755년 네덜란드의 보호 하에 들어갔다. 투쟁 끝에 1755년 2월 13일 망꾸부미 왕자가 기안띠(Giyanti)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마따람 왕국은 족자 왕국과 수라까르따(솔로) 왕국으로 나누어진다. 즉 뿌람바난를 지나는 강 깔리오파크(Kali Opak) 동쪽은 솔로왕국, 서쪽은 족자왕국이다.





제6회

국제·어린이·이 사생대회



하늘은 푸르고 어린이의 꿈은 높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꿈을
키우고자 국제어린이 사생대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Saturday, April 23th 2016 at 10am-2pm

Singapore School Bona Vista(SIS)

JL.Bona Vista Raya, Lebak Bulus, South Jakarta

대상 / 2001~ 2012년생

접수방법 / KCC 한국문화원 Site 다운로드
id.korean - culture.org

접수기간 / 3월 23일~ 4월 23일
17시 (250명 선착순)

주제 / 비공개 (행사당일오피)

감독 / 미협회원 25명
심사 / 미협 2명 외부인 2명
시상식 및 전시 / 5월7일(토) KCC 한국문화원
문의처 / 한국문화원 Ms.김벌리 (Tel: 2903 5650)



대상 JKS / 손재민

 kccindonesia  @kcc_indonesia  <http://id.korean-culture.org>
Equity Tower 17fl. SCBD JL.Jend Sudirman Kav.52-53,jakarta12190



은행에서 필요한 BAHASA

한국은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은행이자 높습니다. 송금을 하거나 입출금을 할 때 직원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래들어 한국은행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체계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직접 송금해야 할 일이 있거나 송금이나 이체를 현지인 직원에게 일임하더라도 하기 내역은 직업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보내시는게 어떨까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Cabang/Branch : Harap diisi dengan huruf cetak atau pilihan beri tanda tickmark / Please write in block letters or mark choice with

Aplikasi Kiriman Uang dan Pemindahbukuan Transfer and Overbooking Application

bii
Maybank

Pemindahbukuan / Overbooking
 Swift / Swift
 Kiring/LLG/SKN / Clearing
 BI-RTGS
 Wesel / Demand Draft
 Tanggal / Date :

Validasi

Sumber Dana / Source of Fund

Tunai / Cash
 Cek/BG No. / Check/BG No. : 3
 Debet Rek. Kami No. / Debit My/Our Acct. No. :
 Lain-lain / Others :

Kiriman Uang/Wesel sah setelah divalidasi atau dibubuhi stempel Teller/Transfer/Demand Draft valid after validation has been printed or time stamped

Mata Uang & Jumlah Kiriman/Wesel / Currency & Amount of transfer/Wesel : (SOA)
 Terbilang / Amount in words : 2

Pengirim / Remitter

Nama / Name : (50)
 Alamat / Address : (50)
 No. Rek. di Bii / f. no. / Bii : 4 WNI WNA

Bank Penerima / Beneficiary's Bank

Nama Bank / Bank Name : (57)
 Alamat / Address : 5
 Kota / City : Negara/Country :
 Kode Bank / Bank's Code :
Dear kode SWIFT, no. ABA (Federal), CHIPS UID, BLZ (Germany), BIC (UK) atau kode kiring lainnya / Country & SWIFT code, ABA no. (Federal), CHIPS UID, BLZ (Germany), BIC (UK) or other clearing codes.

Penorima / Beneficiary

Nama / Name : (59)
 No. Rek. Penerima / Benef's Acct. No. : (59)
 Alamat / Address : 6
 Kewarganegaraan / Citizenship : (59) WNI WNA 7

Berita / Message

Tujuan transaksi/purpose(s) :
 Sandi tujuan/purpose(s) : LHBU LLD (70) 2

Biaya Korresponden / Correspondent Charges

Beban Pengirim (OUR) / Charged to Sender / Full Amount (71A)
 Beban Penerima (BEN) / Charged to Beneficiary (71A)

Saya/kami menyetujui dan tunduk pada seluruh ketentuan dan syarat-syarat yang tercantum pada halaman belakang dan menyatakan bahwa semua pernyataan adalah benar // or We agree and subject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on the reverse side and declares that all particulars are true

Pengesahan Bank/Bank's Authorization : 8 Pengirim/Applicant : 9

Diisi oleh Bank / Bank Use Only

Kurs / Rate	Jumlah Valuta Asing / Amount in For. Currency	Jumlah Rupiah / Amount in IDR
Komisi / Commission		
Ongkos / Charges		
Jumlah Total		

*) Sandi Tujuan Transaksi diisi sesuai dengan Daftar Sandi Tujuan Transaksi yang terdapat pada bagian belakang halaman 1 dan 2 / Purpose filled with purpose codes on the reverse side of page 1 and page 2.
 Khusus transaksi diatas eq. USD.10.000,- dan wajib mengisi data/keterangan yang diperlukan dalam Petaporan LLD yang terdapat di balik halaman ini / Transaction for > Eq. USD.10.000,- please complete the particulars outlined on the reverse side
 PSCD/TRF/03.2006

Petugas PU/Kliring 1/3



-
1. **Apilkasi Kiriman Uang dan Pemindahbukuan** : 이체 및 송금
 2. **Mata Uang & Jumlah Kiriman** : 통화 & 거래금액 /
Terbilang : 알파벳 기입 (총액을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기입)
 3. **Sumber Dana** : 자금 출처
 4. **Pengirim** : 송금인
No Rek di BII : **Nomor Rekening di BII BII** 은행 계좌번호
 5. **Bank Penerima** : 수신 은행
Nama : 은행명
Alamat : 은행소재 주소 (Cabang: 지점명을 적어도 무방함)
Kota : 은행소재 시 (도시)
Kode Bank : 수신은행 코드 (보통 은행에서 코드분리해서 정리해줌)
 6. **Penerima** : 수신인
No Rek Penerima : **Nomor Rekening** 수신 계좌
Alamat : 은행소재 주소 (은행주소와는 달리 지방은행의 경우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수신인이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7. **Kewarganegaraan** : 국적
WNI /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 내국인)
WNA / Warga Negara Asing (국외 국적자, 외국인)
 8. **Pengesahan Bank** : 은행 확인 (은행 창구 직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합니다.)
 9. **Pengirim** : 송금인 서명
-

KOTRA 구인/구직 지원
K-MOVE센터가, 함께 합니다.

(2016년 3월 기준 구인)

기업명	LG상사 인도네시아법인 (PT. Binsar Natorang Energi)	PT. Hung-A Indonesia	PT. Woojin Electro-nite Indonesia
업종	자원개발	타이어제조	온도센서 제조
구인직종	총무	인사총무/재무회계/구매/생산계 획/전산	인사/총무/생산관리

기업명	PT. A PLUS LOGISTIK	씨 사이트(주)	PT. SAMKYUNG JAYA GARMENTS
업종	물류업	의류제조 수출업	여성의류
구인직종	물류업에 관심 있는 0명	1) 외주관리영업 (경력, 과~차장급) 2) 영업생산 (신입) 3) 원단생산관리 (경력, 대리~과장 급/신입) 각 0명	공장장 - 1명 재단관리자 - 1명 봉제관리자 - 1명

*1. 월드잡(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로그인후 왼쪽 상단 “마이페이지” 새 이력서 작성 클릭 --> 국/영문 이력서 작성 (Step 1~5 완료) --> 해외채용정보에서 모집건 클릭 --> 해당 상호명으로 검색 후 지원하기

*2. 이메일 접수 필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혜정 대리 hjshin@kotra.or.kr**
(문의: 021 5790 5226)

이메일로 접수 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행하셔야 지원이 완료됩니다.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 수시채용/구인기업상호명/지원직종/지원자성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코트라 지정양식 이용 : <http://cafe.naver.com/kotrajakarta1> 의 구인정보/취업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전화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추후 면접진행 및 채용과정, 당사자간 합의 및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KOTRA가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안인외 임원잔소금 명단

2016년 3월2일-3월31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2016		135,000,000
7	한인회 고문	배 정 옥	AGRI TRADING INVESTMENT	2016		65,000,000
8	한인회 수석 부회장	김 주 철	STAR CAMTEX	2016		135,000,000
9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박 재 한	PALACE JAVA	2016	10,000	
10	한인회 부회장	강 호 성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2016	5,000	
11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AITI INVESTMENT	2016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ING INTERNATIONAL	2016		67,000,000
13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SEPULUH SUMBER ANUGERAH	2016		70,000,000
14	한인회 부회장	최 덕 열	SHINTA WOO SUNG	2016		67,000,000
15	한인회 부회장	서 태 수	YDS KOREA	2016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손 한 평	DONG SON INDUSTRY	2016		67,000,000
17	한인회 부회장	안 윤 근	YONG WOO INTERNATIONAL	2016		67,000,000
18	한인회 부회장	이 화 수	BANK KEB HANA INDONESIA	2016		67,000,000
19	한인회 부회장	조 현 보	KOMITRANDO-EMPORIO	2016		67,000,000
20	한인회 이사	고 영 철	SHIN KWANG WORLD INDO	2016		13,500,000
21	한인회 이사	김 현 미	INPLAN INTERIOR	2016	1,000	
22	한인회 이사	안 미 경	NARAE TOUR	2016	1,000	
총 금액					S\$27,000	Rp820,500,000

2016년 안인외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6년 3월 3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64	송 재 구	2016	300,000
67	한 기 환	2016	300,000
68	이 원 만	2016	300,000
69	박 중 곤	2016	300,000
70	이 순 형	2016	300,000
71	이 종 순	2016	300,000
72	이 원 만	2016	3,000,000
73	강 진 수	2016	300,000
74	오 세 명	2016	300,000
75	유 창 열	2016	300,000
76	성 기 채	2016	300,000
77	송 목 조	2016	300,000
78	배 정 옥	2016	300,000
79	장 방 식	2016	300,000
80	위 진 복	2016	300,000
81	이 주 용	2016	300,000
82	배 영 태	2016	300,000
83	박 정 호	2016	300,000
84	최 철 우	2016	300,000
85	제 성 호	2016	300,000
86	이 정 준	2016	300,000
87	김 영 수	2016	300,000
88	손 상 진	2016	300,000
89	방 진 학	2016	300,000
90	고 영 철	2016	300,000
총 금액			Rp10,200,000

재인도네시아 안인외 회원증으로 의료혜택을 누리세요!!

번호	의료기관	TEL/FAX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T:(02)1599-100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의료원 (용산, 필동)	T:(02)748-990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20%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할인(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T:(02)970-211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	T:(02)2639-511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T:(02)2650-511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T:(02)9588-11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할인 (여자:유방,자궁암검사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T:(02)1688-757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T:(02)2290-9550~2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9	한국건강관리협회	T:(02)2600-2000	- 우대수가 적용: 20%할인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 국민건강보험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 배 적용
 -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 배 적용
 -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통역봉사자(안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아름다운 관계

유리가 깨지면 영원히 쓸모 없듯이...

사람의 마음 역시 깨어져 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는 쉽게 깨지고 깨지면 못쓰게 되고 깨진 조각은 주위를 어지럽혀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리보다 더 약한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유리가 깨어져 버리듯 서운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입은 마음은 유리조각 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유리처럼 깨진다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에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란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과 이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드러운 관계는 미소를 통해 만들어지며

좋은 관계는 신뢰와 관심 그리고 배려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관심속에 좋은 관계를유지 할수있도록 서로 노력 해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주변을 한번둘러 보세요.

혹여 나로 인해 아파할 지인이나 벗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보세요.

세상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덕향만리 / 좋은 글

<http://m.blog.naver.com/6744100/220328984500>

2016년도 자카르타 국제음악콩쿠르

자카르타의 음악도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과 표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나아가 자카르타의 한국음악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개최일시: 2016년 4월 30일 (토) 오전 9시
2. 개최장소: 자카르타 **한국학교 나래홀**
3. 참가자격: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초, 중, 고교생 (홈스쿨링 학생도 해당학년으로 참가가능)
4. 응시부문:

성악부문	독창	분위기가 다른 자유곡 2곡
기악부문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오보에	독주	빠른 tempo의 자유곡 1곡
	중주	자유곡 1곡

5. 참가부문 연령 구분
 - 초등 저학년부 :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생
 - 초등 고학년부 : 200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 중등부 :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
 - 고등부 :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생
6. 유의 사항
 - 오디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사본과 악보사본 2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모든 곡은 악보로 연주하며 독주악기는 반주자를 대등 해야함.
 - Concerto는 반드시 cadenza를 포함해야함.
 - 전년도 참가곡으로 참가할 경우 실격 처리함.
7. 시상 내역

전체부문 수상자	1등 : 주인도네시아 대사장 1명 2등 : 한인 회장상 1명 3등 : 한인 문예총 회장상 1명	
각부분별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부분별 1,2,3등 각 1명

- * 특전: 전체부문 수상자와 각 부분의 1등 수상자는 입상자 연주회의 기회를 부여함.
 우승자 연주회 일자 : 2016년 5월 15일 (일)
- * 단, 해당부분에 우수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해당부분의 한, 인니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의 심사.

8. 참가 신청
 - **접수기간** : 2016년 2월 1일 ~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참가비 입금 후 입금증 (입금자와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을 jakarta.kma@gmail.com 으로 이메일 발송
 - 입금 확인 후 지원서 및 유의사항 회신함. (문의전화 : 0821-1274-3014)
 - 참가비 : Rp500,000
 - 입금 계좌 : Mandiri 126-00-0929292-0 Woo Kyunghee
 - 문의 : jakarta.kma@gmail.com 또는 musicjakarta7@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인음악협회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석양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저희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증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포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쿼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현직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깎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